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 4월

지 / 역 / 사 / 회 / 특 / 약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경성동길 35-1 여성정책의 집 3층 (주) 100-911 02-275-8336-6 FAX : 275-8336 ID : G1YID(천리안)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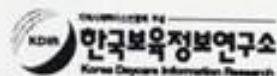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메뉴입니다.



서울 중구 북성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 4월



지 / 역 / 사 / 회 / 특 / 약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75-8505~6 FAX : 275-8506 ID :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7년 4월호

<통권 49호>



<표지사진>

야외수업 중
“내하고 성민이 흙 장난 한다
아이가” “물이 현진이랑 성민이
따라오고 있어요”

겨울 바닷 바람도 우리에게 좋은
수업이 되지요

(사진 / 부산 아기자람터)

일하며 생각하며 / 4

새봄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정 희연

기획 특집 / 5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
방안 마련 공청회 및 지정토론 요약 편집부

보육정책 / 12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정책개발위

인근보육 / 20

인근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안 堀 正剛

3·8여성대회 / 30

제13회 한국여성대회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 편집부

연장교육-하나 / 35

튼튼이 교육, 이렇게 바꿔볼려구요! 김 숙자

돌 / 37

아기자람터 이렇게 합니다! 박 찬주

갯 / 38

다우리, 혼합연령교육을 실시하며! 백 미경

연장소식 / 40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정다운 어린이집 빨강반 졸업여행 김 서란

통신이야기 / 42

용감한 선생님의 PC통신 입문기 이강선주

짜임새

고사의 외견 / 48

이 현경 어린이 건강교사를 제안하며

탐방기 / 50

편집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 봉사단’

이르노에서 온 소식 / 52

변 미양 변미양의 타향살이 이야기

광고 / 54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어린이집 선생님께

탁아소 별곡 / 55

울망줄망 어린이집에서 읽은 일

좋은 그림책 소개 / 56

고 영미 크릭터

육아일기 / 58

나 은미 유빈이 엄마의 욕심

세상일기 / 60

위 양자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접하고

우리들의 목소리 / 48

김 영신 씩씩하고 힘이 센 엄마

민 은홍 다시 지탄연에 돌아와서

소식과 소식 / 64

보육계 풍양 / 67

편집부에서 / 74

1997년 4월호 (통권 49호)
첫발행 1992. 5. 25 / 제1호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 제2호
남미영 / 목은이 박경애, 정순옥, 장예란 / 제3호
1997년 4월 1일

일하며 생각하며

일하며 생각하며

임 남희 (본회 부회장)

3

월이 다가오는 데도 봄의 따사로운보다는 쌀쌀함을 더 느낍니다.

며칠전 부산보육교사회 요청으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서둘러 열차에 몸을 싣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왜 난 이 황금 같은 봄날의 일요일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가는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먼길이고 내가 부산까지 가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부산보육교사회의 4회째 맞는 설기강습회가 권위와 전통을 쌓는데 조금이나마 보탬과 힘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회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고생과 노력이 강습회장엔 배어 있었습니다. 포스터, 자료집, 회원들의 모습이 부산보육교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건강함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상한 것 보다 너무 적은 수의 참여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부산보육교사회 회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참여인원의 문제는 준비 측면의 문제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렇듯 우리가 건설하려는 보육교사회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우리 갈 길을 더디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 격려할 것이고, 아무리 무거워도 함께 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 두배로 만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같이 나눠 반으로 줄입니다.

보육교사회를 갈망하는 보육교사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한 우리는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건설준비위원회 모든 보육교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적**

기획 특집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

편집부

편집자주 : 아래의 글은 지난 3월 24일 교육개혁위원회 주체로 개최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의 주제 발제와 지정토론을 요약하여 실습니다. 올 상반기안에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의 개혁은 범 유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회는 교육개혁위의 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과 입장을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I. 주제발제

1.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과 방향

우리나라 유아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27%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그나마 대부분이 국가지원이 없는 사립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 필요성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은

- ① 출발점 평등의 원칙의 유아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 ② 유아교육에 대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 ③ 육아 비용에 의한 여성인력 사회참여율 저조에 의한 여성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 ④ 청소년 비행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복지비용을 절약키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이다.

2) 방향

- 첫째,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 체제 안에 포함하고,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
- 둘째,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
- 셋째,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5세 유아들에게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여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이 방안

아래에 제시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으로 다소 차이 있는 세가지의 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은 최근 교육부가 GNP 5%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지난해 당정간 합의된 5세아 유치원 교육 무상화에 대해 보육시설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점, 반면에 국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에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주는 유아교육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세가지 방안 각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안

현행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

◎ 내용

- 이미 학교체제 안에 포함되어 3세 이상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여 확대시킴으로서 큰 혼란 없이 점진적으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 나감.

◎ 제안 배경

- 교육부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교육예산 중 유아교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0년까지는 3%수준, 2005년까지는 5%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교육부가 검토 중인 [유아교육 진흥 방안]의 요지는 5세아 취원을 100% 달성,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5세아 무상교육 추진, 종일반 운영 지원임.

◎ 기대효과

-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진흥을 통한 공교육 체제 확립에 확실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확립된 유치원의 질 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제공되는 유아교육의 질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양분화 현상이 강화되어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위화감이 더욱 고착될 수 있음.
- 시설·설비 확충에 따른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원율이 점진적으로 상승될 것이므로 OECD 최하위 수준의 취원율은 당분간 감수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중간 공급자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유아를 유치하기 위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제 2 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유아교육 체제로 일원화하여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안

◎ 내용

- 유치원에는 보호 기능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감.

◎ 제안배경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3~5세 유아에 대한 국가 인력 관리를 단일 명칭의 교육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임.

◎ 기대효과

-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인력, 운영 경험 등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중산층은 유치원,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이라는 계층간 위화감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되고, 무상교육의 혜택을 전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 신속한 시일 내에 유아교육 수혜율을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추구할 수 있게 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원만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경우 국민/지역주민의 유아교육 및 보호에 대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학교와 지원시설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일원화 시키는데 따른 불협화음이 야기될 수 있음.
- 관련 부처의 역할 분담, 보호기능 추가와 교육기능 강화에 대한 인증조건, 보수체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법률 정비/재조정하여 일원화 체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룰 경우 유아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짐.
- 유아교육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

제 3 안

유치원을 새로운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안

◎ 내용

- 기존의 유치원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함께 갖춘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감.

◎ 제안배경

-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며,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유치원 이외의 기관에 도 문호를 개방하여 유아학교를 확대하자는 것임.

◎ 기대효과

- 유아교육과 영아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음.
- 시설·설비 확충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며, 유아교육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음.
- 영아 보육과 유아교육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선진 각국과 유사한 의무 교육 단계 이전의 미래 국가인력 관리체제를 확립하게 됨.

◎ 고려사항

- 타 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유치원 관련 제반 기준(시설·설비, 학급/유아담당교사, 종일반 운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타 기관이 유아학교로 전환해 오지 않을 경우 예상했던 기대가 달성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전환에 따른 일정 기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 방안 공청회 지정토론 내용 요약

■ 김광웅(아동학회 회장)

유아교육개혁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할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어린이들이다. 유아기의 경험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유아교육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지원, 관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30-40년간 방치되었던 유아교육을 일거에 개혁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이익집단 간에 갈등을 예상해볼 때, 3가지 안 중 어떤 안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 어느 안이 적합한 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한다. 중요한 기준은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각 안에 대해 살펴보자. 1안의 경우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육부는 지지할 테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만 지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안이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해당 연령의 27%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성,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2안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함으로써 양적으로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형식상의 큰 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과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그 피해가 어른들의 이해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로 돌아간다. 3안의 경우, 1안과 2안을 변형, 보완한 것이다. 교육은 급격하게, 쉽게, 빨리 변화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시행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다. 또한 그 속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의 요구에 따른 보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당장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타의 시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다소의 경과조치기간이 필요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겠지만 대도시의 5세아들은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 학원에 간다. 현재의 유치원에 3년을 보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유치원이 시설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일반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된다. 다른 기관이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겠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나라 유아를 다 취원시킬 수 있다. 현재 3-5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 27%와 어린이집 취원율 15%를 합하면 상당 수에 이른다. 운영자들은 유아학교로 전환했을 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 김수일(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한 분야의 이해에 근거한 개혁내용에 문제가 있다. 교개위 개혁안에 일관성이 없다. 이는 유아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상황에 따른 개혁을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취학전 1년 무상교육에 대한 정교한 계획없이, 지난 번 유치원무상교육이라는 편파적인 안을 제시하더니 또다시 보육시설을 제외시키면서 유치원 중심으로 진행시키려하고 있다. 금번 유아교육개혁안은 유치원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만 5세 미만의 무상교육 추진 계획도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유아학교체제가 구축될 경우 기존 유치원은 모두, 보육시설은 선별적으로 유아학교로 전환될 터인데 이는 5세아 무상교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유아에게 지적 발달 위주의 교육을 시킬 것인가, 통합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어린이집은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종일보육을 하고 유치원을 3시간 교육을 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보육시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도서벽지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유아교육학과나 아동학과 출신이다. 교육의 질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개위가 우리나라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만을 통계자료로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수준이 OECD국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유치원 취원율과 어린이집 취원율을 합산하면 OECD수준에 육박한다. 95년에만 해도 1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보육시설을 확충해 놓은 상황에서 0-2세는 보육시설이 3-5세는 유아학교가 많다는 안은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아직 2세아까지는 부모, 혈연관계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유치원 중심의 이런 유아학교체제로의 전환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입시제도가 1년에 한번 씩 바뀌는 것이나 예전에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온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 행정체계만 해도 그렇다. 전에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환되면서 내부위에서 관할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대부분 위탁형태임을 감안할 때 교육부 주도의 행정체계로 이관될 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경력있는 시설장의 역할이 사장될 것이다. 교개위는 특정부처, 특정분야,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안이 아닌, 보편적 당위성을 갖는 안을 창출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스웨덴의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 이기숙(유아교육학회 회장)

이번 개혁의 대전제는 유아교육이 반드시 공교육체제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 예산 가운데 유아교육예산은 0.97%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개혁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3안이 모든 아이에게 혜택을 주는 안이라 하겠다. 교개위안이 유치원 중심의 안이라면 이 자리에 보육시설 관계자가 올 필요가 없었다.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학생들의 어린이집 진출도 50%에 이르고 있다. 교사도 서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고 서로 협력하면 잘 할 수 있다. 또한 3안을 선택할 경우 시설확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이 유아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비용, 시설환경의 문제 때문이다. 2안의 문제점은 새마을 유아원의 선례를 보면 알 수 있다. 3안을 선택할 경우 유아학교 내에 유치반과 유아반을 둘 수 있다.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준비단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아학교는 비록 학교 시스템 안에 있지만 초등학교 5세아 조기입학 실행의 효율성과 문

제점을 고려하여 유치원 독자적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5% 예산으로 공교육체제가 되면 계층간의 위화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후로 법률적 체제 정비와 행정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어떠한 안을 수용하더라도 교육부가 유아교육 예산을 상향 조정해나가야 한다.

■ 한경자(한국유치원연합회 회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5세아 무상교육은 유치원의 오랜 바람이었다. 제2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영유아보육법이 합법화할 때 이미 되었어야 할 안이다. 유아와 학부모를 위해서는 2안이 좋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오랜 갈등을 고려해볼 때 3안을 지지한다.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보조,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총 9800개의 유치원 중 2500개만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 기준령을 완화하여 소규모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대부분의 소규모 유치원이 임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저리 용자를 해주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과 동시에 유아학교장의 자격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게는 방통대 등에 입학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유아학교체제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하고 행정관리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장학, 지도관리를 위해 현재의 유아교육담당관실을 과나 국 단위로 승격해야 한다. 이 기회에 유사 기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숙희(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낀다.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교육복지서비스로서의 보육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보육에서 이루어진 저소득층 지원의 원칙이 유치원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 3세 이상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0세 이상 아동의 보육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전체 0세 이상의 아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2안을 지지하지만 안의 선택 이전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체제, 무상교육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모의 요구에 기능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의 질 관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육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분리된다면 어른들의 이해 때문에 아이가 오전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계층 간 괴리도 문제다. 또 어떤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로 부터, 어떤 아이는 양성교육을 받은 교사로 부터 교육받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 교사에 대한 관리도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 개혁은 교육의 공급자인 어른들의 갖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시설이나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질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2안을 지지한다. [한경자]

보육정책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 보육사업 문제점과 제안사항 -

정책개발위원회

편집지주 : 지난 3월 20일, 본회 회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을 면담하여, '97보육사업지침을 분석·논의·정리한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제안서에는 올해로 끝나는 확충계획의 객관적 평가와 개선대책 수립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교사인건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들어가며

- '96.12월말 현재 보육시설수 12,098개소, 보육대상아동수 403,001명(보육율 약40%)로서 '92년에서 '96년 사이 연평균 시설증가율이 24.3%, 아동보육 증가율이 31.1%씩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육시설의 증가추세의 영향으로 80년에서 95년까지의 연령세대별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력공급 단절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아직도 60만명 이상의 아동이 비공식적 보육서비스 방안에서 그 질을 가늠할 수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도 보육시설확충계획의 중간점검과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추진계획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면 낙관적이기도 합니다.

I.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관련 제안사항

가. 공공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의 파행성 극복방안 수립

- 공공보육시설 설치계획상 76%이상을 의존해 온 사회복지·종교·학교 부설시설의 설치를 부진으로 인해 '96.12월말 현재 전 시설중 국공립시설 점유율 8.9% 그침
- 이들 시설은 유관보육프로그램 시범시설화 하고 지원강화등 유인책 필요
예) 복지관- 장애아보육, 학교- 방과후보육 등
- 확충사업의 추진방향을 전체 시설수 확대가 아닌 공공시설의 보육율 확대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지역내 민간시설을 정부지원 시설화하여 신축투자비용 절감·보육아동수 확대 추진

나.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동반자의식 제고

- 지난 몇 년간 국공립시설의 시설점유율과 아동보육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민간·가정시설의 역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연금 융자사업등을 토대로 많은 수의 민간보육시설들이 대형화한 결과로 추정됨.

	시 설 수					아 동 수				
	전 체	국공립	민 간	직 장	가 정	전 체	국공립	민 간	직 장	가 정
'92	4,513 (100.0)	720 (16.0)	1,808 (40.1)	28 (0.6)	1,957 (43.4)	123,297 (100.0)	49,529 (40.2)	57,797 (46.9)	768 (0.6)	15,203 (12.3)
'93	5,490 (100.0)	837 (15.3)	2,419 (44.1)	29 (0.5)	2,205 (40.1)	153,105 (100.0)	55,138 (36.0)	80,400 (52.5)	560 (0.4)	17,012 (11.1)
'94	6,975 (100.0)	983 (14.1)	3,091 (44.3)	37 (0.5)	2,864 (41.1)	219,308 (100.0)	70,937 (32.4)	119,968 (54.7)	979 (0.5)	27,427 (12.5)
'95	7,643 (100.0)	1,010 (13.2)	3,430 (44.9)	44 (0.6)	3,159 (41.3)	248,658 (100.0)	75,447 (30.3)	140,389 (56.5)	1,206 (0.5)	31,616 (12.7)
'96	10,787 (100.0)	1,057 (9.8)	5,150 (47.7)	107 (1.0)	4,473 (41.5)	364,026 (100.0)	83,860 (23.0)	224,464 (61.7)	3,300 (0.9)	52,402 (14.4)
연평균 증가율	24.3%	10.1%	29.0%	39.8%	23.0%	31.1%	14.1%	40.4%	44.0%	

자료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여성개발원 '96.

-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저소득지역-국공립시설, 일반지역-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한 시설 확충과 민간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추진계획"은 수요공급의 일반원리를 무시한 계획임
즉, 우리나라 고학력여성의 취업율이 OECD국가들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평균인 9.8P의 4배수준이며, 대부분의 기혼여성근로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 고용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보육수요가 높은 저소득 주변지역에서의 시설편중·가격경쟁이 불가피해짐
- 오히려 이의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정책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 필요
즉, 현재의 시설별 지원에서 프로그램별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아동보육을 실시하는 전체 보육시설을 지원대상화하며, 이와 함께 보육료수납방식도 기존의 시설별 일괄수납방식에서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제로 전환 실시. 그리고 일정수준 이하의 보육료 납부아동의 분포도에 따른 시설별 운영비 차등지원 강구

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객관적 조사결과에 기초한 사업추진

- 방과후보육,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정책 고무적.
- 방과후보육의 보육대상아동 추계방식의 문제
'92년 현재 여성유휴인력 180만명중 구직활동은 하지않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업자의 연령계층이 주로 방과후 보육아동의 부모연령대인 30~39세 38.5%, 40~45세 2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구직기피사유 1순위로 제기된 것은 다름아닌 가사·육아부담이었음.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증대방안』 한국노동연구원 '96. 11)
따라서 방과후보육과 관련한 객관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확충계획 제검토 및 아동발달육구에 기초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절실히 요구됨.
- 또한 학령기아동의 자기보호능력을 과신, 보육요구율을 하향책정 하는 오류가 없기를 바람. 학교폭력·청소년비행의 확대·아동성폭행·자기보호아동의 불안심리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적극적 정책수립 요구됨.
- 현행 방과후보육료 수준, 교사대 아동비율은 단순탁아외에 학교교육을 보완할 종합적 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 비현실적 기준이며, 보육료의 현실화 없이는 방과후보육시설의 확충 어려움

II. 전체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의 질 제고방안 강구

가. 보육프로그램 연구성과 보급시 형평성 제고

- 전시설 아동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과 민간시설 점유율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연구 성과에 대한 무료보급대상을 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연구개발 주제 제안
 - 여성고용구조의 변화로 수년내 보육운영방식의 전형을 이룰 일시보육, 야간연장보육, 방문보육, 병약아보육 등의 운영프로그램 관련.
 - 교사 보수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욕구조사 및 현 교육기관 실태조사
 - 차등보육료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등

나. 보육료 소득공제 제도 신설 관련

- 유치원에 이어 보육시설 이용자의 소득공제 실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 보육비용의 전면적 사회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육수당제도등 직접지원제 도입이 필요하나 급변 보육료 소득공제 제도 신설은 보육비용과 관련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다양한 확대 경로중 일방식으로서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급변 소득공제 제도에는 몇가지 보완이 필요함
 - 소득이 낮은 면세집단이 제외되고 소득계층간 역진적 재분배효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공제 (고소득자 공제를 낮게, 저소득자 공제를 높게 책정) 등의 보완책 도입 검토 필요
 - 비공식적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보육활동 (미인가시설, 선교원, 학원, 친척, 방문인보육 등)에 대한 공제 확대방안 수립. (현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중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여 자녀를 보육하여 소득공제를 받게되는 경우는 56.1%에 불과 『육아비용과 여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다. 보육정보센터 확대 관련

- 보육정보센터의 확대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나, 향후 정보센터사업가 보다 더 독립적·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중앙-광역시-기초단위 정보센터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가칭 "정보센터협의회"의 구성이나 위탁제의 간접배제방안 강구

- 보육정보센터 보육지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필요

III. 보육시설종사자 관리제도 개선 관련

가. 보육교사 자격인정제도 강화

-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와 보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문대 이상수준의 보육교사 교육훈련 및 자격증제도 신설 바람직
- 현재 보육시설 (특히 소규모 민간시설)에서의 보육교사 구인난이 심각한 반면 보육관련 자격 소지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즉,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조건,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심리, 높은 이직율, 보육교사자격에 대한 권위 실추 등이 일반화되었으며, 이의 결과로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의 보육시설기피현상과 위에서 지적한 보육교사자격소지자의 유사시설 취업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 실제 '94년말 기준 연간 보육교사자격소지자 배출규모를 보면 유아교육관련학과 (유아교육, 아동학, 아동복지학과를 전공한 전문대, 대학, 방송통신대학 졸업인원) 졸업생 9천 725명과 보육교사 양성훈련원 수료인원 19천 330명을 합한 약 3만명의 인원에 이 외 관련학과 졸업생 포함할 경우 수만명에 이름. 그러나 수요측면에서는 유치원이 전국에 8천 900개소(원아 51만) 보육시설 총 12천 098개소(원아 40만)로 한해동안의 졸업인원만으로도 충족가능한 규모임.
-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 인정범위 및 인정교과목 재조정 필요

- 현재 제도는 12개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초등교육학과)를 관련학과로 인정
- 관련학과 범위를 보육시설에 필요한 전체종사자와 관련된 전학과로 하기보다는 보육시설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수적인 유아교육·아동학과·복지학과로 제한하는 것이 이들 관련학과 진출자들의 취업유도를 위해 바람직
- 또한 인정교과목 (291쪽)의 4종 구분시 구분기준 및 해당교과목 재배정 필요
- 현재 제도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영유아 발달과 교육등,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등,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 이론등으로 구분하고 해당교과목으로 위의 12개 관련학과 의 교과를 고르게 분포시켜 놓아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교과이수를 유도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구분항목을 교육·보호·복지·행정·실기 등으로 재배정한 후 되도록 구분항목별로 타학과의 교과목이 배치되도록 재배정 필요

나.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6년 이상 경과되어 전국적으로 시설장자격 소유자수가 필요인원을 충족할 수준이라 판단되어 영보법 시행규칙상의 시설장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할 시점이라 사료됨. 특히 보육시설 근무경력 (시설장과 교사로 국한)을 필수경력화하여 신규시설에서의 무경력 시설장 채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재정 및 조직관리 미숙 등)을 미연에 방지
- 40인미만 시설장자격 세분화 :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자격을 보육교사 1급이상으로 한정

다. 교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 교육훈련기관 총평가제 실시 및 모범교재 출판
 - 평가대상·평가도구·시기 및 방법등의 선정은 올 하반기중 중앙보육위원회(또는 중앙보육정보센터) 산하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확정 가능.
 - 훈련기관 위탁연장시 평가결과를 활용한 객관적 근거확보
-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자격강화
- 승급교육의 기간 및 내용 차별화하여 개발·실시
 - 2급 → 1급 승급시 유아교육 실기교육 다양화
 - 1급 → 시설장 승급시 지역사회복지론·조직기술론 등 직위별 필요업무 재교육 필요

라. 경력인정제도 개선 관련

- 시설운영자의 인건비 부담완화와 동일시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력인정범위를 소화하던 기존입장에서 벗어나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보육교사의 불만해소·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신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한 듯 하나 조속한 보완조치 필요
- 첫째, 형평성의 문제 내포 - '96년 12월 중순이전 이직교사 (정부의 시설확충정책 추진기여로 신규시설로의 경력교사의 이직이 활발했던 시기)와 후배교사간의 인정 경력의 차이로 경력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과도적 유예조치 필요.
- 둘째,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경력불인정등 제도자체의 불완전함과 함께 휴직인정기간에 대한 자치단체별 적용기준 통일성 결여
- 셋째, 경력교사의 채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 확대

- '97년 인건비 인상을 18.9%와 이직시 호봉인정 등으로 기존시설 뿐 아니라 특히 확충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신규시설의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대상 및 내역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 시설과 지자체의 부담 과중 → 시설에서의 경력교사 회피로 결과될 가능성 농후함
- 따라서 정부지원시설의 교사정원 전체에 대한 호봉인상분의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

○ 넷째, 보육시설 경력인정외에 학력인정·유사경력인정 검토

- 공무원·사기업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는 점차 학력철폐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보육현장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학력과 유사경력(정보센터, 관련단체 경력등)에 대한 호봉산정 가능성 검토 필요
- '95년 말 수도권지역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17개소·시청 1개소·삼성공익재단 등 19개소를 전화설문한 결과 74% (14개소)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호봉제 채택 하고 있었으나, 21%(삼성재단 26개 보육시설 포함)에서 학력과 경력을 별도로 인정하거나 5%(1개소)가 유사경력까지 인정하여 보수지급
- 또한 유치원교사의 보수지침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서도 유치원경력·학력·기타 경력까지 인정하여 호봉산정
 - 전문대 유교과 출신 초임호봉 6호봉, 4년제 유교과 출신 초임 9호봉, 1급정교사자격 취득시 1호봉 추가인정
 -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발췌분)

환 산 율	경 력
10 할	공사립교원(보육교사, 병설전임강사도 인정, 공무원-기능직, 고용직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8 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한 자로서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력
6 할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5 할	공공단체 근무경력, 법인 근무경력,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 근무한 경력
4 할	각종 회사에서 근무경력(외교인, 점원은 제외)
3 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 현재 영보법은 보육교사경력외에는 군복무 의무기간 3년에 한해서만 인정
- 보육교사의 질 제고 위한 학력인정제 도입시 고졸 1호봉, 전문대 2호봉, 대졸3호봉인정 (보육부 검토사항)하여 시설부담 최소화하고 향후 확대가능케 추진 바람직
- 유사경력 인정범위 및 환산율은 각계여론 수렴이 필요할 듯 보이며 제안사항은 보육지도원 및 관련직공무원 경력 10할인정, 아동복지 관련법인 근무와 관련단체 근무경력 5할인정, 전임이상 강사경력 인정을 검토요구 등

마. 경력관리 철저

경력인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종사자 관리업무의 객관성확보 중요해짐. 그러나 현재 휴·폐업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위 개선제도의 악용 사례 우려됨

IV. 전체보육시설 종사자의 신설 수당에 대한 정부 인건비보조 확대

- '97년 정부지원시설 초임교사의 인건비는 월평균 102만원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인건비(평균 55만원,상여금 200%)의 146% 수준
- 민간·가정시설이 시설점유율 89%·아동보육율 76% 인점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교사 처우개선 중요
- '97 신설수당액을 전체보육시설 종사자(정부지원시설 교사중 비지원대상종사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포함)에 대한 신설수당액을 지급하고 시설에서 인건비수준을 정부지원시설수준화 하도록 유도.

이때 소요될 예산추정액은 연간 약 540억원 규모

VI. 5인미만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의 4대 보험 가입방안 강구

-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우선 적용 추진
- 지방비 이용한 산재보험료 지원

인권보육 커리큘럼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한 제언

堀 正嗣 - 스즈키 쇼조(일본보육정보센터 부소장)

편집자주 : 이 자료는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을 맞이하여 일본인권보육의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96 일본보육대회 분과토론회 자료 『인권보육커리큘럼에 대한 제언』입니다.
12, 1/2월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IV. 「인권보육커리큘럼」에서는 무엇을 다루면 좋은가?

아이들이 처해있는 현재상황, 가정·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실정을 파악해야 하겠다.

아이들은 부모의 의식과 행동, 지역의 복잡한 상황,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 그리고 비디오, 그림책, 서로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과의 교제 등에 영향을 받아 좋고, 나쁨이 이미 몸에 배어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우리 머리 속에 그려진 관념으로서의 「엔젤」(천사)로 존재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대로 두면 어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차별」의 씨앗이 트기 시작한다. 즉, 「차별」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될 지도 모를, 씨앗이 자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별의 씨」이 트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1. 비하시키는 말 헐뜯는 말, 질책하는 말

a) 바보, 천치, 멍청이 등 갖가지 욕설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충돌하면 상대방을 굴려주기 위해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말을 쓰는 아이들은 가정과 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만 금지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어른들이 먼저 비하시키는 말을 쓰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만큼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습을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보라든가 천치라는 말은 「장애자」에 대한 차별과 결부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들 필요가 있다.

b) 절름발이, 조막손, 장님 등 장애자를 헐뜯는 말도 자주 사용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른 집단이 이런 말을 쓰는 걸 문제삼지 않은

채, 이런 말을 사용한 아이들을 힐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c) 땅꼬마, 꺾다리, 돼지, 대머리, 말라깽이 등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을 공격하는 말도 자주 사용된다.

d) 제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어도 사용된다. 이런 말은 배타적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e) 빈부 또는 문벌의식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

f) 능력에 관해 헐뜯는 말

예를 들면 똥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쁜 것으로 단정지어, 할 수 있는 아이가 할 수 없는 아이를 비웃는다든지, 헐뜯는다든지 한다. 「oo는 예기래요」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비웃는 아이는,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너는 아기가 아니잖아” 하는 비교형의 꾸짖음이나 가림침을 받고 자란 경우가 많다.

g) 성차를 의식하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정보연구센터의 보육이론부회에서 작년에 만든 「성차의 고정화를 바로잡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여기에 참고로 들어둔다.

2. 아이들 주변의 「문화제」 「교제」(育材라고 부르는 편이 좋다고 생각된다.) 등의 점검

① 이야기, 동화, 그림책, 민화의 점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것은 「문화제」로서,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 시대상황, 그 시대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신분이라든가

「자료」

성자의 고정화를 바로잡는 체크리스트

1. 여자들이 올 때 「넌 남자지, 남자들은 올지 않는지, 라고 말하지 않는가?
2. 똥가들 서글 때 「넌 여자니까 설거지를 하지, 라고 말하지 않는가?
3. 여성 오조배행사, 선전, 탐험가, 그역자 등의 보드를 특별히 다루어 여자들에게 여자에게 존 격이 있는가?
4. 여자들의 도서를 보지 [맛있고나, 엄마가 만들어주신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5. 그림책 나와는 그림에서, 여자가 언제나 앞사람을 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6. 여자가 속에서 여자애가 조연인 경우, 그역하고 어울려서 묘사된 것을 선택하여 읽히고 있지 않는가?
7. 남자들은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여자들은 그 반대로 묘사되고 있지 않는가?
8. 여자애도, 남자애도 경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여자애는 여자애다운으로, 남자애는 남자다운으로 [그속에서 있지 않는가?]
9. 남자애가 [권력을 빼앗다]고 하면 벌인 여자애가 성 격하지 않는가?
10. 남자애만해도 육아와 집안일을 그 책임을 지고 있는가?
11. 남자애도 여자애도 농작업이나 공작업 등에 같이 참여하는가?
12. 여자애도 스포츠활동에 특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가?
13. 남자애만해도 모래의 집안일을 지고 있는가?

문벌의식도 그 속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적든, 차별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옛 것은 배제해야만 한다면 수정해서 주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진 피노키오 이야기가 한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피노키오를 궁지에 몰아넣은 키지네와 네코가 결국 장애자가 되어 검은 안경을

끼고 거리에 나왔어 길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장애자를 「인과 용보」로 보는 견해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장애 자측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노키오를 추방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것을 추방한다고 장애자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장애자차별에 충분히 마음을 쓰지 못한 피노키오 작자의 시대와 아직 까지도 같은 수준의 장애자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읽히고 있다는 데 있다. 요컨대 보육자집단이 장애자차별에 반대하여 장애아와 건강한 아이로 분리워지는 아이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아이들을 기르는 통일된 목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자집단으로 부터 솔직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구주지방에서 예로 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도는 장님한테 듣고, 도리는 귀머거리한테 듣는다.」라는 것이다. 장님, 귀머거리 등의 차별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속담은 차별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의 편견을 절타하고 있다고 해야 좋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으로서 보육자가 장애자(아)와 사귀어, 정상화를 실행에 옮겨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고대민담을 보면 할아버지는 늘 착한 사람, 할머니는 허탈한 참새이야기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세의 허를 찌를 줄라버리는 악랄한 사람이라는 패턴을 이루고 있다. 나쁜 할머니가 크고 무거운 옷고리짝을 가지고 돌아오다 도중에 길에서 열어보는데 그 순간 도깨비가 덮쳐버린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첫째, 이런 이야기를 지은이가 대부분 남자라는 것, 둘째, 할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은 「생활자」이고, 아득바득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차별 반대라는 의식으로 보면 「허탈한 참새」 같은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과연 아이들이 여성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날 보장이 있을까?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어느 때, 몇 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배워 생활자로서 여성의 고된 삶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② 인형의 문제

인형의식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천황인형은 천황, 황후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이다. 이 한쌍의 인형을 상단에 설치하고 다음에 3인의 궁녀, 5인의 가무단 등을 꾸며 놓는다. 이 인형의식이라는 형식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고, 특히 명치 이후 천황제의 확립과 더불어 서민생활에 침투하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관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천황중심의 사회구조가 하나의 번 아래, 천민신분을 피차 별부락으로 고정화한 당시사회로 부터 유래한 의식이라고 생각되기에 피차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이것을 축하할 기분이 날 수는 없다.

인형놀러보내기 같은 행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인형전반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종이나 흙으로 만든 인형이 이윽고 요즘의 인형으로 형태가 변하여 아이들의 놀이친구 역할을 하는 바, 최근에는 봉제인형이 널리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보육소와 유아원의 인형 가운데 피부색이 다양한 인형을 의식적으로 모아놓는 것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세간에는 피부색, 머리색, 눈색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인형을 비치하여 아이들이

평상시에 갖고 놀 수 있도록 하는 보육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한 여러가지 인형을 비치해 두는 보육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의 유아원과 보육소에는 핑크색을 「살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살」색이 이러한 색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백인과 흑인의 피부를 보고 이질감을 지니게 된다. 살색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육내용을 생각한다는 것은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기르는 보육의 첫째가는 중요한 요건이다.

③ 텔레비전, 메스컴, 비디오 등의 문제

아이들은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된 시대에 자란 부모, 메스컴의 영향 속에서 자란 부모들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다. 따라서 메스컴의 해악, 텔레비전의 해악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만으로는 통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텔레비전을 어떻게 아이들의 생활 속에 위치지으면 좋을 것인가, 비디오와 메스컴을 어떻게 생활 속에 위치지으면 좋을 것인가는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된다.

또한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겨냥한 상업성이 무원칙하게 파고들어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외국의 예에 비추어 어떤 제도장치 같은 규준을 마련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비디오 혹은 텔레비전 게임의 내용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예를 들면 불쌍한 토토로 등), 게임 등은 합부로 상대방을 힘으로 해친다든지, 죽인다든지, 처부순다든지 하는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 인권의 관점으로 보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어른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운동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3. 아이들의 참가·참여를 높이는 보육

① 「속박」, 「주입」보육의 극복

어린이권리조약 서문에 보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원가를 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진실로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을 어른과 마찬가지로 참가·참여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견표명권(제12조), 표현·정보의 자유(제13조), 결사의 자유(제15조),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제17조), 교육의 권리(제28조), 휴식, 여가, 놀이, 문화·예술생활참가(제31조) 등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종래의 보육 커리큘럼은 하달방식으로 부모의 손을 통하여 아이들을 「구속」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온 것이 보편적이었다(물론, 학급정원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소풍 등의 계획은 원의 방침에 따라 몇 시에, 어디로, 어떤 수단으로 가는 지도 알지 못한 채, 부모가 준비해 준 도시락과 오후간식을 가지고 모여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경험하고 올지, 기대에 부풀어 가슴이 뛰는 가운데 소풍에 참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

一事萬事라, 아이들의 일상보육에의 참가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기·장기의 종합활동 같은 보육내용의 창조가 필요하다.

② 생활습관의 문제에 대하여

예의범절의 문제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배게하고 자립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루소의 사고방식은 하나의 전형이다. 즉 그

는 기성사회에 아이들을 편입시켜가는 것은 극력 피하고 [생활습관에 오염되지 않은 습관]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아이들을 교육하여 주는 것은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교육을 제1로 하여 인간이 아이들을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극력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버틀란트 러셀은 문명사회에 태어난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옳으므로, 가령 이를 닦기 위해서는 매일 치솔을 사용할 필요가 있듯이 장차 노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자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나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생활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 자유롭게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시간임수]라는 생활습관을 몸에 배게 해두는 편이 낫다. 따라서 루소가 말하는 소극설(negativetheory)만으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는 일정한 습관을 머리 속에 강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생활습관은, 아이들의 생활의 場인, 가정과 보육소, 유아원 등이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그 장의 어른들의 생활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가 문제로 된다.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의 생활이 무언가의 조직원칙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장차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는 데 실패하게 된다. 어른들의 생활이 조직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독려받을 때, 아이들의 생활은 오히려 즐겁고 기분 좋게 된다.

그러나 어른들의 생활조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리를 옆으로 길게 뻗고 누워서 턱을 치켜올리고 모친을 계속 부리는 조직원칙에서 생활해온 아이는 다시금 여성차별자의 성질을 몸에 익히게 된다. 생활의 민주주의적인 조직원칙이란 무엇인가, 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것은 생활문화의 문제

이며, 인권을 존중한 문화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소위 남자의 앉음새, 여자의 앉음새(부친의 앉음새, 모친의 앉음새) 등에 관해서도 검토가 요구되는데, 식사 예절 등은 다문화공생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말인가 하면 [직접 손으로 먹는] 식사방식을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배워온 아이들은 인도지방에서 오른손가락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든지, 경멸한다든지 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을 안게 된다. 식사의 본질은 저작하는 것이고, 저작이란 음식을 잘 씹는다는 것이다.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겁게 먹는 상황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하든지, 젓가락으로 먹든지, 손가락으로 먹든지의 식사의 형식문제이고 예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지방의 특수한 전통 속에서 정착되어온 하나의 문화양식이어서 그것이 차후에 몸에 배게 되면 좋은 것이다. 다른 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함이 좋다. 오로지 이 형식이 유일하다는 식으로 구애될 필요가 없다. 장·자크·루소가 200년 전에 [생활습관의 포로가 되지 않는 습성]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자신이 귀속한 집단의 예절을 익히고 그것이 유일한 최고의 예절인양 배워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개성]과 [집단]의 관계 문제이다. 다문화공생의 시대에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문제는 이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③ 아이들과 노동(일)의 문제

아이는 우리 어른과 대등·평등한 인권의 주체이다. 역사적으로 여자와 아이는 남성의 종속자로 생각되어 온 바, 부권확립에 의하여 [생

살여탈]의 권리가 남성인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고방식이 부권권력의 확립과정에서 성립하였다. 이것을 비판한 아동관이 부권주의비판과 함께 주장되었다. 자유주의적인 아동관, 그 전형은 루소의 아동관이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동의 발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의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자연은 아이들이 어른이기 전에 아이이기를 바라고 있다] (에밀). 어른들이 아이는 어른과 다르다는 것을, 더구나 자신들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은 어른과 아이의 단절면(차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근대산업이 대량의 물질생산 및 그 수송수단의 혁명에 의하여 이루어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변화된, 어른들의 아이를 보는 시각 변화와 함께 보급되었다. [아귀(餓鬼)]관으로부터의 탈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다.

부여(provision), 보호(protection)의 2p는 1924년 제네바선언에도, 1959년 국제연합의 어린이권리선언에도 [우리 인류가 지니고 있는 최선의 것을 아이들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말로 그 전문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1989년) 어린이권리조약의 사상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전일보하였다. 어린이는 어른과 대등·평등한 권리의 주체라는, 인간으로서의 동일성에 주의를 돌렸다. 이 때의 어른은 인권에 주목하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어른과 어린이는 인권 하에서 대등·평등하다고 여기는 조건이 달린 대등·평등인 것이다. 그로부터 비로소, 어린이는 제3의 p 즉 participation(참가·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사고가 성립하는 것이다. 생살여탈의 권리는 호주인 아버지에게 있다

는 사고에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네] [네]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아동관에서, 아이는 사랑스러운 존재, 부여받고 보호받고 아이답게 살아가는 게 좋다는 아동관으로의 변화가 나오고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는 대등·평등하다는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라는 아동관이 이제 세 상스럽게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근대화, 포스트모던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그것도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도시도 농촌도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전기, 가솔린 등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손과 발의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사람들은 단시간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생활양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풍부한 물질을 부여받고, 보호받고 있다 하더라도 실은 어른들의 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몸을 움직여 물질을 가공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다.

노동이라는 말은 임노동(labour)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자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노동(일)을 모두 돈으로 사서 소비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이같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을 참가, 참여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준비되지 않는, 즉 공동생활자로서 위치지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어린이권리조약 위반이라는 것을 문제삼지 않으면 안된다.

④ 아이들의 표현활동을 풍부하게

아이들은 억압된 분위기에 놓여질 때, 즉 때를 맞는다든지, 때도당한다든지, 부당하게 벌을 받는다든지 하면,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억압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거칠게 행동한다든지, 약한 사람이 눈에 띄면 공격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

든지 하게 된다. 어른에 대한 불신감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을 주저하는 아이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생활작문] 교사들은 [개념부수기]라고 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이끌어내는 전제로서 중시하여 왔다. 유아의 경우에는 [음주-스스로] 관계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부모·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정인에게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느낄) 수 있는 아이는 자신의 자유로운 세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험을 시도한다. 그 작은 모험의 시도를 [칭찬]받는다든가 [확인]받을 때 아이의 주제적 능력은 조금씩 커나간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아이들은 그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이를 칭찬하면서, 할 수 없는 아이를 무시한다든지 주저하는 아이를 꾸짖는 다든지 하게 되면 야단맞은 아이는 자존심이 상해서 표현(즉 그림그리기)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어와 표준어를 좋은 말, 방언이나 사투리 예들말은 좋지 않은 말이라 하여 고쳐 말하기를 요구받은 아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아이가 되고 제동이 걸려 말 배우기가 곤란하게 된다. 혀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아이를 무리하게 고쳐주려 해서는 안된다. 생리적 선행조건(이 경우에는 구개의 발육)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뿐더러 아이에게 콤플렉스를 심어주게 된다.

아이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 전제가 되는 아이의 <신체리듬>과 <언어리듬>을 결합하는 문제는 30년 전에 동화보육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확실하게 해왔던 원칙의 하나이다.

아기를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아기의 울음 소리에 잘 반응해주고 아기의 몸짓이나 표정에 반응을 나타내고 되풀이해서 말을 걸어주어야 한다. 웅얼이 시기에 들어서면 몸의 리듬에 맞춰, 말의 리듬을 명료한 형식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다. '웅얼이'와 '웅얼이·동작'을 연결하여 그것을 따라하게 하고 의성음을 계속 들려주면서 그대로 따라해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은 보육에 결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앞서 우리가 말한 인권보육 커리큘럼의 원점이 있는 것이다. 아이는 울음에 의해 이미 말하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문화, 보육소·유아원문화로 지금까지 취급되어온 음악리듬도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문부성 창가는 음악을, 음을 "괴로운"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받아왔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고 억지로 시키면 아이들은 자신을 음치라고 생각하여 노래부르기를 그만두어 버린다. 그런 아이도 지방민요는 웬만큼 잘 부를 수 있다.

동요, 민요에는 그 지방생활의 리듬과 말의 리듬, 말의 특징에 의해 생겨난 멜로디와 신체 리듬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어서 무리없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착문화에는 토착리듬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다. 지방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토착문화를 찾아내어 [전승] 문화의 소중함을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차별받는 민중의 정감·바람·리듬·논리를 분별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육실천의 창출은, 보육소를 아이와 부모의 생활과 연결하여 사람들의悲願·요구에 대해 열어두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이는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게 되고>, <스스로 해 보았던> 것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놀게>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하는 극놀이 등은 위와 같은 토대

를 바탕으로 해서 차츰 진짜로 되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극놀이를 통해 자기가 자라온 고장에 대한 애정,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다. 몸에 배어 있는 언어리듬과 결합된 음악적 표현, 대사로 표현되는 토착언어, 가면이라든가 복장, 장치의 조작작업이 다름 아닌 토착문화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절망, 바람, 희망 등 일체의 종합적인 표현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극놀이라는 종합적 표현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보육자가 토착적인 삶에 깊게 물들어 있어야 한다.

고도·경제성장정책이 채택되고 부터 우리의 <삶>은 토착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고 근대주의적 생활에 젖어들고 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 풍족한 삶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참으로 인간적인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근대화된 생활에 의해 아이들의 표현력이 약해져 버렸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⑤ 아이와 자연의 관계를 풍부하게

[나뭇잎 빛깔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고, 땀을 스치는 바람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새가 우는 소리에서 생명체의 삶의 소리를 듣고, 나무열매의 달콤함에서 결실의 감사함을 음미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생의 시작을 예감한다.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의 즐거움과 엄숙함을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느껴왔다. 오래고 오랜 지구의 역사라는 도정에서 태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맥을 잇고 이어, 아직 한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해 온 생명. 우리들 인간이란, 유일하게 감정을 지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살기 위해 외계의 모든 것을 감각을 연마하여 인식해왔다.

나뭇잎이 물들 무렵, 시냇가 바위 밑에 물고기가 모여있다. 자연을 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구름의 움직임, 물의 흐름, 나무의 흔들림, 초목의

성장, 동물의 습성, 사계의 변화, 사람은 생물과 환경, 자연의 모든 모습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삶에 활용하여 반드시 삶에 원동력을 부여한다. 어른도 아이도 저마다 제 역할을 맡아 온몸으로 살아왔다. 인류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왔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자연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사회 성원이 빈부에 따른 신분으로 갈라지고, 일하지 않고 수확물을 손에 넣는 사람, 일해도 착취받는 사람이 나타났다. 공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자연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자연과 맞닿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기는 커녕, 자연에 작용하는 것과 자연에 접하는 것을 싫어하는 의식조차 퍼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자연을 제패하기 위해 파괴를 서슴치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산다는 의미, 인간과 지구의 관계, 그리고 자연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 생명과 문화의 역사가 밟아온 도정에 따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글은 [동화보육입문 시리즈3] [[아이들의 생활과 자연]] (하권)에 森山康浩 선생이 쓰신 권두언이다.

森山 선생은 그 머릿말에서 [풀꽃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해서 질문을 받으면 곤란할까봐 야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불안하다.... 이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자. 처음부터 이름이 붙여진 풀꽃은 없다.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그러니 이름을 알지 못하겠거든 아이들과 함께 딱 들어맞는 이름을 붙여주면 그만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느끼는 법, 자연과 어울리는 법에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가르치려들 것이 아니라 자연을 [스승]삼아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자연과 접촉하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교감하면 좋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보다 많이 자연을 찾아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자연 속에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아이들의 감각이 살아나도록 마음을 쓰는 것.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하게 하는 것. 때로 자연과 아이의 중간에서 자연의 언어를 기록하는 것. 아이들의 흥미를 일깨울만한 장면을 준비하는 것.....등일 것이다. 그러한 때에 어른이 지니고 있는 기성 개념으로 “아름답다”든가 “추하다”든가 하는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 한다든지, 싫다든가, 좋다든가 하는 어른의 잣대로 자연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그것은 선입관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연을, 먼저 아이 자신의 감각으로 체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흔히들 [도시 한가운데 보육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전혀 없기 때문에.....]하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이 5가지 행위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거기에 무궁무진한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계절이 바뀌지 않는 곳에 있는 보육소가 어디 있으랴!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배우면 좋은가]가 커리큘럼의 문제인 것이다. 오끼나와의 아이들과 북해도의 아이들은 필시 학습방법이 다를 것이고 배우는 순서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육소와 아이들이 천천히, 차분히 자연과 서로 교감하고 자연의 실태를 학습해갈 때 아이들은 자연을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 자연과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인간으로 자랄 것이다.

⑥ 아이의 “몸에 대한 생각”을 다시 묻는다.

아이를 길러온 많은 어머니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많은 영유아들은 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흐른다든지, 상한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든지,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하여 병치레가 끊

일 날이 없다. 갓난아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모태에서 모친의 면역을 받아 보호받고 모유를 먹는 동안은 보통 이 면역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병원균과 이물질의 침입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다가 모유를 떼고 인공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을 무렵부터 자신의 힘으로 병원균과 이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 무렵부터 갖가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보육소와 유아원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면 유행성질병에 걸리기 쉽다.

병치레가 잦은 아이를 약한 아이, 병치레가 적은 아이를 대장부라고 잘라 말해서는 안된다.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하고 병의 종류에 적당한 간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에 걸리면 아이를 보육소나 유아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돌보면서 계속 간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그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것이 일본여성들의 [M자형 취업율 곡선]이라는 현상이 있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학교를 나와 몇년 동안은 일을 하지만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면 일단 퇴직하고 아이가 다 크고 나면 다시 일하는 것이 이 M자형의 통계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의 평균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게 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남녀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간병을 위한 휴가를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소와 유아원에 療育室 설비를 갖추고 간호원을 배치하여 의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병에 걸린 아이는 거기에 [입원]하는 것과 같은 소위 병아보육이 필요하다. 일부 동화보육소에는 병아보육을 제도화 해놓았지만 일본보육소를 살펴보면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여 보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이후의 문제이다.

[一病息災]라는 말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인간은 건강해야 좋다지만 한 두가지 병에 걸려있어도 오히려 그것과 잘 어울려 있는 사람이 보통이고, 그 편이 [息災] 즉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息災延命]이라는 말은 그로부터 나온 것이다. 장부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젊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운동선수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도 많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스포츠가 몸에 부담을 주어 거듭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 강하다는 것, 힘이 세다는 것, 몸집이 크다는 것, 무리해도 견디내는 것이 좋다는 말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생각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戰前 천황제 사회에서는 국민개병제가 있어 남자는 모두 병사가 되어 강한 군대를 이루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그 국민皆兵의 국민 속에 여자는 제외되었다.

학교라는 학교마다 교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병식체조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다. 20세 된 남자는 皆兵隊檢査를 받아 감종합격, 울종합격으로 분류되고 병종은 불합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여겨졌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신헌법이 제정된 후 일본사회제도는 크게 바뀌었다. 신교육이 시작되고 남녀공학도 제도화되어 戰前의 가치관도 변화하였다. 그러나 몸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스포츠 만능형의 몸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골프, 프로복싱 선수, 프로축구, 프로테니스 선수 등등 위험과 인기가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는 연수입이 억단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쟁 전보다도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능력있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피라미트의 정점에 선 프로선수는 극히 한정되고 그 밑에 있는 무

수히 많은 아이들 가운데 어떤 기능장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이다. 경쟁주의와 능력주의의 폐해가 이러한 몸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한다.

사람의 몸이 자라는 기본은 외계의 자연을 받아들여 몸이라는 자연을 자신이 다스려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인시키고 습관화시키는 것이다. <저작>이라는 것을 음식을 잘 씹어 맛있게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보육소, 유아원, 학교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빨리 먹기>를 장려하는 것은 반성을 요한다. 아이들 저마다의 개성에 맞는 식사방식을 인정하고 즐겁게, 화기애애한 담소를 즐기면서 즐겁게 식사할 필요가 있다.

동화보육운동의 초기단계에 피차별부락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시절, 부모들도 높은 유아사망율, 잦은 아이들의 질병이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육소에 요구하였기 때문에 [덴몸 보육][덴발 보육][강한 체력만들기]를 요구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 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몸을 유연성 있게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탄력있음]이라는 말로 표현된 내용은 아마 명확치는 않지만 강하다든가, 빠르다든가, 장부다라는 가치를 오히려 피하고 어떤 충격에도 간단히 꺾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一病息災로 통하는 것이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의 가치를 억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들 보육자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하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놀이 속에서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몸을 기르는 보육내용으로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무리없이 참가할 수 있는 여유있는 놀이를 창조해야만 한다. [탄력]

3·8 여성대회

제13회 한국여성대회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편집부

한

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주최 제 13회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약 5천여명 여연 소속단체 회원과 가족들 그리고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여성대회는 여연 10주년 기념이라는 뜻깊은 의미로 행사가 예년에 비해 규모나 내용에 있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의를 품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사전행사로 여성미술연구회가 여성의 몸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여성의 몸읽기 퍼포먼스'가 백주년기념관 로비에서 여성미술연구회 회원들이 제작한 여성의 신체를 그린 그림에 관객들이 리본으로 모자이크를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회원단체들이 자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물품, 책자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여성민우회 주부 품물패 '단비'의 신명나는 길놀이에 이어 지은희 여연 상임대표의 개회선언과 각 지역 여성회, 그리고 본회등 회원단체의 기수입장으로 참가자들의 환호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연 10주년 기념행사도 겸한 이 자리에서는

'87년 이후 여성운동을 총결산한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비디오가 상영돼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감회를 새롭게 하였다.

이어서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드물게 복지부 장관이 내빈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대중국민회의 총재 등의 축하, 정은숙교수(세종대 음대)의 축하 등으로 무르익으며 여성대회의 최고의 꽃인 '올해의 여성운동상'시상이 거행됐다.

지

난 1년을 결산해 여성의 권익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공로자에게 수상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여성신문사 이계경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이계경 여연 '올해의 여성운동상'시상 심사위원장은 이계경 <여성신문>대표이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대안적인 여성언론 매체인 (주)여성신문사를 1988년 설립하여, 여성운동의 과제를 사회여론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악회, 열린가족 문화제, 평등부부상 수상 등의 새로운 여성 문화 양식을 창조한 점'과 '평등사회를 위한

'96 여성인력 활용전'을 통해 여성고용창출에 기여한 바 크므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을 이끌어온 여연 역대 회장단과 공동대표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는데 이우정, 이효재, 조화순, 한명숙, 이영순, 이미경씨가 수상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10년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운동의 버팀목이 되었던 이들에게 수여하는 '여성운동 지킴이상'수상식도 함께 거행되었는데,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자 부안군 변산면 어린이집, 정양희 여성의 전화 총무국장, 조정하 시청자연대회의 사무국장, 최명숙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창신동 개구장이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한길을 지킨 본회의 천인숙선생님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본 행사 사이 사이에 꽃다지, 안혜경, 여성예술집단 '오름'의 연극<투표용지는 상품권이 아냐>, 안치환, 전북여성농민노래단의 축하공연으로 기념관 안은 행사 내내 흥분의 도가니였다.

3

8여성대회의 '올해의 여성상'만큼 관심과 흥미를 끄는 여성권의 '디딤돌', '걸림돌' 수상(?)은 관심도 만큼 열렬한 호응속에 진행되었다. '디딤돌'로는 96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명동성당 농성단에 참여, 여성의 당당한 투쟁의지를 보인 병원노련의 박문진 위원장, 기록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제작으로 정신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여론화하는데 공헌한 변영주 감독, 여성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빛장을 여는 사람들', 96년 8월

10일 성추행범을 뒤쫓다 살해된 의로운 시민 최성규씨,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문제를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에서 당당하게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한 추미에 의원등이 뽑혔다.

또 '걸림돌'로는 여성차등정년을 인정한 대법관 김형선씨,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한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제작사(주)시네마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피.폭행을 야기한 LG그룹,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성을 투쟁수법으로 써왔다"는 주장을 편 이재오 국회의원, 반인권적·교육적 행태를 자행한 전 신양중학교 교장 황수연씨가 뽑혀 관중들의 야유를 샀다.

한

편, "저를 다시 소개하죠. 저는 오·한 숙희입니다. 예 저는 이·전상덕입니다." 라는 사회자들의 엄숙한 진행으로 이어진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의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은 여성대회 행사의 의의를 더욱 더 뜻깊게 해주었고 참가자들은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새기며 잃어버린 모계를 되찾은 기쁨에 모두가 흐뭇해 하였다.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13회 여성대회는 장장 3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행사였지만 참가자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사를 더더욱 빛나게 하였다.

전국에서 올라온 우리의 여성과 가족들은 여연 10주년 기념을 자축하며 3.8여성대회의 의의를 살려 이 땅의 모권향상과 여성운동의 중심에 서서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의하며 행사를 나눴다. **주최**

사진으로 본 제13회 한국여성대회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제13회 한국여성대회 개막을 알리는 주부풍물패
'단바'와 '글놀이'



'여성의 몸달기' 행사장에서 리본을 붙이는 모녀
"스연의 남자인 선생님 글내외!"



'올해의 여성상'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한 이계경 여성신문사 사장



「대담」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한 '백정을 만난 사람들'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저렴한 상」 상을 수상한 계구장이 어린이집의 천인숙선생님, "선생님 정말 수고예요!"



모두 기립하여 환호하는 참석자들
"세 딸, 세 딸, 세 딸"

3.8여성대회날 선언한 '부모성(姓)함께쓰기 선언'을 소개한다.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

우리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로 인간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성(姓)함께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신생아의 여남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1994년)이 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남아선호는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일년에 3만 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의 불평등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순으로 승계 되는 호주제, 부계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금혼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 있는 부가(夫家)입적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강고한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을 남편의 피부양자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여성을 임시직·보조직 등 주변부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명백한 사회적 재생산이라 할 수 있는 임신·육아의 부담을 개별여성, 개별가정의 부담으로 돌리는 사회제도 등이 모두 남성중심의 가족관,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우리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남성중심의 가족제도와 성차별적인 사회제도·관습·태도 등이 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수백년동안 지속되어온 남성중심의 가족제도가 변해야만 여아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성씨제도의 민주화를 우리는 주장한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합의에 의해 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아버지 성만을 써온 우리 세대부터 부모성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한다. 우리의 이 운동이 여자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남평등사회를 향한 의식개혁의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1997년 3월9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姓)함께 쓰기선언자 일동

대표선언자 이·이효제 외 170명

현장교육

편집지주 : 어린이집교사들은 늘 현장보육에 대한 고민을 달고 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좀체로 변화를 시도하기란 어렵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집의 생활, 놀이와 활동을 아이들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교사들의 의도가 담긴 작은 실험과 시도들이 있어 이 난에 소개하고자 한다. 글을 주신 선생님들은 아직 시도단계라 밖으로 내보이기 부끄럽다고 극구 사양하셨지만 이런 시도가 현장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교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 난이 현장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난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튼튼이의 교육, 이렇게 바꿔볼려구요!!

김 숙자 (남부, 튼튼이어린이집 교사)

지 난 96년 튼튼이엔 아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다. 그중 보건복지부에서 모범보육시설을 선정한 것과 지택연에서 실시한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이 가장 큰 계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설립된 후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물론 상금에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모범보육시설에 도전했고 구로구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최종 결과는 다른 곳이었지만 그래도 구로구 모범보육시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청에 서류를 가지고 갈 때면 조금은(?)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계기인 성교육 강좌에의 참여 동기는 95년 발간한 책 "선생님! 색깔에는 여자 남자 없죠?"의 제목 때문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여성단체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제목과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하게 되었고, 지택연에서는 그

책을 성교육자료집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구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교육 방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지택연 '97년 겨울수련회때 하이스코프 접근 방식에 대한 강의는 (금상첨화라 해야 하나?) 마치 겨울수련회가 튼튼이를 위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했다. 이렇게 튼튼이의 아동교육에 대한 고민의 질은 점점 깊이(?)를 더해 갔고 96년 평가를 하면서 97년 12월 동안부터 준비하여 3월부터 교육방식을 전환해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커 다란 포부를 가지고 영역을 구분하여 개방교육을 하자고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고민은 점점 늘어만 갔다. 12월 개방주의 교육에 대한 책을 읽으며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튼튼이가 왜 그렇게 좋아만 보이던지... 과연 21평의 공간, 그것도 2개의 방과 거실,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에서 얼마만큼 가능할까? 점점 자

신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교육철학이 개방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았기에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툼툼이의 환경을 바꾸어갔다. 우선 백두, 한라반으로 나뉘어졌던 반구성을 없애고-아이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한라반 아이들의 소원(?)은 백두반이 졸업하면 자기들이 백두반이 된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이지만 영역을 구분하였다. 전에는 한라반, 백두반으로 나눠 11시부터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10시부터 두 그룹으로 나눠 계획하기를 한다. 오전 활동과 오후 활동에 영역을 적당히 나누어 배치하고-공간이 좁기에 모든 영역을 항상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아이들이 원하는 영역에서 활동하게 하였다. 잠자는 방에 의자와 책상이 있어 잠자는 시간이 되는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그 정도의 어려움은 금방 잊게 해 준다. 지난 2월에 졸업식을 했고 새로운 아이들이 있어 안정된 분위기가

아닌데다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려움은 많다.

모든 영역에 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이, 시종일관 바깥놀이만 하려고 하는 아이, 전체가 획일화된 내용을 함께 학습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심을 중심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느새 한 영역에 모여있는 모든 아이들과 함께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내모습을 발견하면서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다. 생각이 하게 된다. 자기가 계획한 활동과 상관없이 친구 따라 강남가는 아이들, 바깥놀이하러 나가는 아이만 보면 5.6세인 몇몇 아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가져오고 정리하는 상태의 발전과 꺼내놓은지 이틀 만에 관심을 끌은 양팔 저울 옆에 둘러앉아 장난감과 추를 올려놓으며 저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아이들을 보며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생각해본다.

참고로 툼툼이의 하루 일과와 영역 구성을 적어본다.

※ 툼툼이들의 하루 일과

8 : 00 ~ 10 : 00	등원, 자유놀이, 오전 간식
~ 10 : 30	계획하기 ~ 12 : 00 오전활동
~ 1 : 00	점심식사 ~ 1 : 30 신체활동
~ 4 : 00	낮잠 ~ 4 : 30 옷입기, 머리빗기
~ 5 : 00	오후간식 ~ 6 : 00 오후활동
~ 6 : 30	평가하기 ~ 7 : 00 자유놀이, 하원

※ 툼툼이 어린이집의 학습·환경 구성

- | | |
|------------|------------------------|
| 1) 실내 흥미영역 | 2) 실외 흥미영역 |
| ① 작업영역 | ① 신체활동영역: 그네등 약간의 놀이시설 |
| ② 수·과학영역 | ② 작업영역 |
| ③ 소꿉놀이영역 | ③ 물·모래놀이영역 |
| ④ 쌓기놀이영역 | ④ 산책 |
| ⑤ 언어영역 | ★ 산책은 동네 한바퀴 돌기를 함. |
| ⑥ 음률영역 | |
- ①②는 큰방, ③④는 거실, ⑤⑥는 작은방

아기자람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박 찬주 (부산, 아기자람터 어린이집 교사)

자 모들이 훌리고 지나간 말이지만 즐겁게 들린 한 마디의 말 "아기자람터 선생님들은 교사회의, 교사수련회를 자주 하는 것 보면 단합이 잘되나 봅니다."

그렇다. 정전된 마을을 밝히는 기분으로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아동관찰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2주 단위로 연구일기를 작성했기 때문에 들여다보아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아기자람터 교사들의 땀방울이 빛나는 만남의 횡수는 많아졌다. 교사들이 같이 연구 일기를 쓰다보니, 모든 문제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려 하고, 모든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감정을 억제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고,

계속 연구일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97년 교육활동에는 우리 교사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 중에서 핵심인 교사와 아동이 의식적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교육활동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를 작년 교육활동의 전체 평가를 토대로 토론했다. 합의 한 내용을 가지고 부모협력작업을 거쳐 시도해 보기로 하고 지금 서서히 진행 중인 하나는 교육활동 계획을 월별로 주제를 정하고 계획된 주제의 내용은 고정적이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아동이 보이는 흥미나 욕구에 의해서 월 별 주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 고정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아동의 자연스러운 흥미유발, 아동의 제안과 합의, 교사의 제안과 합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주제의 전개도를 만들어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주력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되게 아동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교사가 주도적이고 형식적인 연안, 월안, 주안은 부모들에게 자료로 나가지 않고, 교사는 아동과 활동했던 교육활동내용과 전반적인 생활을 충분히 기록해서 사진과 관찰일기로 남겨 한 주제가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상담 등에 활용하고 교육의 준거로 삼기로 했다.

하나는 야외학습이다.

또 올해는 야외학습의 주제를 바다로 정하여 연 6회를 바다로 야외학습을 가기로 결정했다. 부산이 항구 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다대포, 송도를 야외 학습지도 정하게 되었다. 또 매주 토요일은 아기자람터와 가까이 있는 황령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접하기로 하였다.

야외학습을 다녀온 후 반드시 기록물들을 남기기로 했고, 그 형태는 그 때의 유아들 반응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평가에서 교사와 부모들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글자·숫자·학습지 교육이다. 글자, 숫자, 학습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안 가르쳐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은 놀기만 한다고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어린이집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고정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아기자람터도 물론 글자, 숫자, 학습지를 집중

적으로 가르쳐달라는 자모들의 요구도 있었다.

그래서 부모 협력작업을 통해서 글자, 숫자, 학습지 공부, 아동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본 자모들과 교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토론을 한 후 글자, 숫자, 학습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교사의

교육방침에 동의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보육 현실에서 아기자람터 교사들은 어린이가 개인적인 발달과정을 인정받고 가장 어린이답게 생각하고 놀 수 있도록 어린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우리의 혼합연령 보육을 실시하며

백 미경 (남부, 다우리어린이집 교사)

우 리 어린이집은 3년 동안 영아만을 전담해온 영아전담시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두 자녀를 한곳에 보육하는 경우 보육료 반액을 지원해 해 주겠다는 정부의 보육지침이 발표되어 두 자녀를 함께 보육할 경우에 한해 만3세아를 받기로 했다. 또한 저 연령층 아이들의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적 접근들이 필요해 지면서 우리 어린이집의 교육적 형태와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연령별 반구성에 따라 웅알이반에서 18개월이 되면 재잘이 1반(18-27개월)으로 옮겨오고, 또 27개월이 넘으면 재잘이 2반(28-36개월)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연령층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재잘이 1반에서 2반으로 옮겨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이들이 많아서 옮기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혼합연령으로 반을 구성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혼합연령 보육에 대한 여러 장점들이 많다는 평소의 견해들을 종합해서

혼합연령 보육을 해보기로 하고 부모상담을 통해 1달 동안 실시해 보았다.

우 선 기존의 연령별 반 구성으로 나뉘었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생활하게 한 뒤 평소 무리를 지어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한 반에 묶고, 형제 자매들은 반을 나누고 고연령과 저연령이 고루 분포하도록 반을 나눠 보았다. 그래서 한 반에 아동이 10명에 교사 2명이 배치되었다. 교육내용은 같이 작성하여 두반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른 영역의 배치는 최소한의 영역만을 만들어서 배치하였다. 소꿉놀이영역, 블록, 조작영역, 동화, 언어영역, 미술활동영역등 그에 따른 여러 교재교구를 최대한 제공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 주변에 배치해 놓았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이 반구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 습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워 했다. 그래서 1주일만 반구별을 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교재

교구를 구성해 주었다. 2주째는 반을 구별하여 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이름표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할 때 반을 구별 옷장이나 소지품등 자기 물건에 대한 인식이 하여 진행하였다. 그렇게 한 주일 정도 진행하

떨라서 금방 혼란스러움은 정리가 되었다. **현역인**

① 2월 한달 동안의 혼합연령보육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 장점

- ① 어린이집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어졌다.
고연령끼리는 모두가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범위가 넓고, 서로간의 경쟁적인 놀이를 많이 해서 항상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들떠 있었으나 혼합연령으로 나눈 후로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 ② 교육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분위기가 잘 조성된다.
고연령의 아이들이 분위기를 잡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저연령 아이들이 따라서 의자에 앉으므로 교육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 ③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가 아주 높다.
저연령의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 빨라지고 있으며, 놀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놀이에 대한 흥미와 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 ④ 교사의 준비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지고 있다.

● 단점

- ① 저연령 아동의 개별 생활습관 형성, 배변훈련등이 세밀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② 저연령 아동들이 놀이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아이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 ③ 교사의 준비와 물리적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으면 고연령의 아이들이 흥미를 잃기 쉽다.

현장소식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정다운 어린이집 빨강반 졸업여행 -

김 서란 (익산시, 정다운어린이집 교사)

7살이지만 유난히 작은 키에 머스마 같이 우직한 미진이 앞으로 취학 통지서가 날아왔다. 새침테기 수현이도, 그림을 잘 그리고 색칠도 예쁘게 하는 병일이도, 양전한 새색시 온지도, 동생을 잘 보살펴 주는 세나도, 까만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태호도 함께.

3살때 부터 형을 따라다니며 어린이집에서 커온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품을 떠나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어느새 커서 엄마의 손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대하는 대견함과 서운함이 교차되는 심정과 같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그 서운함도 달래도 아이들에게 제2의 엄마로서의 의무감을 덜기 위하여 아이들을 잠시 빌리기로 하였다. 1박 2일 동안만.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기차도 탈수 있는 곳-대천으로 여행지

를 정하고 아침마다 아이들은 "졸업여행 언제 가요"라는 질문으로 아침인사를 대신하던 중 드디어 2월 23일이 되었다.

"바닷바람이 차다는데, 아이가 기침이 많아요"



엄마, 아빠의 걱정을 뒤로한 채 우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가방은 옷이며 간식이며 모자 등으로 꽉차서 뒤통뒤통 걷는 품이 뚱뚱한 아기 눈사람을 생각나게 했지만 원장선생님과 빨

강반선생님과 12명의 빨강 눈사람의 마음은 벌써 대천에 가 있었다.

군산에서 배를 타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잘못 알고 장항까지 가려고 하는 바람에 하마터

면 배 구경도 못할 뻔했지만 택시를 다시 돌려 선착장으로 달렸다. 마침 11시30분발 배가 고동을 울리는 동안 배표를 끊고 차가운 바다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장항으로 향했다.

갈매기가 날고, 배에 밀려 갈라지는 파도를 뒤로하고 아이들은 마냥 들떠 있었고 배에서 내린 우리는 장항 기차역으로 걸어갔다. 선착장과 기차역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이 걷기에도 무리가 없었다. 딸을 보내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그랬는지 세나아빠는 벌써 장항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다음날 대천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온 도시락을 대합실에서 먹으며 야외에 온 기분을 내기도 했다.

12시 30분, 기차가 출발하기전 기념사진을 찰카닥 한장 박고 기차에 오르는 순간 차장 아저씨가 눈치를 준다. "가장 떠드는 아이는 아저씨가 서울까지 데려간다고 하는데"-안돼요 아저씨 우리는 대천에서 내릴거예요 졸업여행 가야돼요.~"

대천에서 내려 해수욕장 가는 버스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들어서니 벌써 바다내음이 풍긴다. 바다 가까이에서 살지 않은 아이들이 평



소 느껴보지 않는 느낌이 다. 바닷가에 먼저 갈까, 놀이동산에서 먼저 놀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놀이동산에서 먼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나니 벌써 저녁시간이 되어 저녁밥을 아이들과 같이 지어먹고 밤에는 전기 놀이, 야광 도깨비, 007뿔, 아기 공룡놀이를 하고 나니 벌써 아이들 눈이 하나둘씩 감긴다. 차를 타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재미있게 놀았나 보다. 10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아침을 지어먹고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있다. 밤새 인어공주가 대천에도 있다 없다 우기던 아이들과 직접 바닷가에서 인어공주를 확인했지만(대천에는 인어공주 상이 있다)엄마 아빠, 동생들에게 선물할 조개를 주우면서도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터미널에서 내려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군산으로 가는 동안 몇몇 아이들은 잠에 떨어져 있지만 몇 아이들은 아직도 여행에 신나서 떠돌고 있다. 군산에 도착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선생님을 한별이가 "선생님 군산이에요" 깨운다(아이들은 기운도 좋다)

익산에 내려 집으로 바래다주고 나니 우리할 일이 끝난 것 같다. 다시 내가 맡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갈 때이다.

우리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10년 20년 후의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글을 맺는다. [현직]

통신이야기

썩썩한 어린이집

용감한 선생님의 PC통신 입문기

이강선주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여기는 썩썩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썩썩한 어린이집 입니다. 저는 용감한 선생님이구요. 제 이름이 좀 이상하구요? 사실은 어린이집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랍니다. 여러분도 짐작 하셨겠지만 전 엄청 용감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답니다. 아아 아니에요. 뭐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그런건 아니구요. 사소한 일이지만...

전 컴맹이거든요. 사실은 컴맹이라고만 말할 수 도 없어요. 이젠 아예 '기계치'에 가까우니까요. 기계치가 뭐냐구요? 노래를 못하면 음치잖아요. 그러니 기계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저는 기계치라 할 수 밖에요. 전 형광등하나만 갈아끼우려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꺼비집을 내리고 목장갑을 찾아 끼우고 법석을 떨어야만 하지요. 그런 분들이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전 만들기나 김밥 만들기는 배웠지만 전기의 구조나 그런 건 도통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기계치가 된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건 제 탓이라기 보다는 여학생은 기계에 관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내탓이 아니라고 넘겨 버리기엔 사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컴퓨터를 다룰줄 모른다는 거죠. 남들은 인터넷이다 뭐다해서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다닌다는데... 쯤.

용감한 선생님이 지레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 썩썩한 어린이집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전 이름 값을 하기 위해 용감하게 PC통신에 입문하기로 했답니다.

통신이 뭐냐구요? 전유성씨가 그랬잖아요. '컴퓨터로 전화하는게 컴퓨터 통신'이라구요. 이제부터는 제가 배운 PC통신의 방법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통신을 시작하려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컴퓨터로 통신을 시작하려면 모뎀이라는게 필요하대요. 그 모뎀은 전화의 말과 컴퓨터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사의 역할을 하고 있대더라구요. 뭔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거 같대구요? 걱정마세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모뎀은 컴퓨터 안에 넣는 내장형과 밖에 나와있는 외장형이 있는데..내장형이 더 싸고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내장형이 더 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되요. 물론 비싼게 더 좋은 것 일거라는 건 짐작하고 계셨지요? 모뎀이 있고 컴퓨터가 준비되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구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통신 에뮬레이터라는 건데 '이야기 5.3'이라는게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돈을 내고 사야 하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이야기 5.3'을 쓰기로 했어요. 공개되어 있다는 건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돈 안받고 모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구하는 건 쉬워요. 컴퓨터 통신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준비한 세가지 컴퓨터와 모뎀과 통신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해야하나..?그런 고민이 생겼지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호호 자원을 활용하는 거야요. 자활로 나오시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중 한둘은 다들 컴퓨터에는 준도사들이더라구요. 텔레비전 켜서 채널 돌리는 법만 알면 됐지 브라운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까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요 뭐. 궁금하면 나중에 차차로 알아가지요.

그래서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뎀이 설치되고 통신 에뮬레이터도 깔고 전화기와 컴퓨터의 선도 연결했어요. 물론 제가 한건 아니구요. 그런데 다음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남아있더라구요. 통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았지요. 회사들 중에서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어린이집 놀이방 찾아가기]정보가 있는 곳은 하이텔과 천리안 그리고 유니텔이었어요. 그중에 자주 들어본 이름인 하이텔과 천리안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지요. 하이텔은 (전화080-022-1410) 한국통신에서 하는 건데 정액제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달에 9900원으로 정액제더군요. 그러면 마냥 사용해도 돈은 적금만 낼 수 있구나 해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썩 이유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접속에 성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천리안에(220-0220)에 알아보았더니 천리안은 요금체계가 좀더 복잡하더군요. 기본적으로는 10이내를 쓰면 6600원이고 한시간 초과마다 돈이 올라간대요. 30시간 기본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달에 30시간 이내를 사용하면 요금이 11000원이지요. 시간이 넘어가면 요금은 더 붙고요. 그래서 저는 30시간 기본형으로 했지요. 참 잊지 말아야 할것은 전화요금은 사용료와는 별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잘 계산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용시간을 잘 생각해야 할거예요. 30시간 기본형으로 결정하고 나서는 아이디(ID)를 만들어야 했어요. 아이디는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름의 첫자를 따서 LSJ29라고 지었답니다. 29는 뭐냐구요? 호호 그건 비밀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이 비밀번호를 정하는 거죠. 비밀번호는 비밀이니 알려드릴 수가 없구요. 이것 역시 영어와 숫자가 가능해요. 가까운 지정점에 전화를 해서 가입신청을 하고 나면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난거지요. 참 가입신청은 PC통신에 접속해서 하셔도 되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드디어 컴퓨터를 켭니다. 깜빡거리는 커서는 어서 빨리 무언가를 명령하라고 독촉하는데..제일먼저 도스나 윈도우 상태에서 '이야기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c:\I>

그리고 다음 화면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신나게 엔터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 데이콤입니다.

천리안 MagiCall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비스를원하시는 본은 "서비스 가입신청"을 통해

원하시는 서비스 및 요금납부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GUEST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면 천리안 MagiCall에 대한

소개 및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이용신청]

1. 서비스 가입신청
2. GUEST 서비스 이용신청

12. 비밀번호 분실신고

[서비스 소개]

21. 서비스 일반
22. 인터넷
23. 기업포털/CUG(이용/요금 관련 안내)
24. 홈쇼핑/홈뱅킹11. 서비스 요금/이용약관
082. 데이콤전화 상세이용내역
96. '96온라인 취업박람회
98. 데이콤 요금 자동납부 신청

도움말(?H) 직접이동(GO) 접속종료(X,BYE) 기타(Z)

선택> 1

가입신청은 1번이네요 1번하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서비스 가입신청

1. 천리안메직콜(10시간기본형)
2. 천리안메직콜(30시간기본형)
3. 어린이천리안
4. 천리안PPP(단독)

11. 해외거주자 가입신청

20. 한국방송대 학생 가입 신청

도움말(?H)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접속종료(X,BYE) 기타(Z)선택>

원하시는 번호를 누르시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가입절차가 끝나게 됩니다.이런식으로 가입 절차를 끝내셨다면 가입처리가 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버 세계로 부터 나가봅시다.

화면 아래에 이런 글이 나올 거예요. 나가고 싶다면 접속종료 X를 누르세요

도움말(?H) 직접이동(GO) 접속종료(X,BYE) 기타(Z)

선택> x

접속을 종료하시겠습니까 (Y/n) ? y

LOGIN ... 97/03/10 16:08:36 LOGOUT ... 97/03/10 16:09:15

금번 이용시간은 39초 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문안들이 주루룩 올라갑니다.

< Tips for Today >

★ 수천 페이지짜리 공짜잡지 천리안문단(DEBUT), 알고 계세요? ★
부가요금 없이 볼 수 있는 소설/무협소설/공트/에세이/추리소설/시들이날마다
타이핑자국도 신형하게 등록되는 천리안 문단!수백 개의 연재작들이 속편을
기다리는 독자들을 애달게 만들고 있습니다.

go DEBUT하는 순간 천리안 애용서비스 목록이 추가됩니다.

< 종료공지 >

★ L.A TIMES 등 미국일간지의 원문, 번역 서비스	go UNEWS
★ 이제 해외에서 천리안접속, 인터넷로밍서비스	go ROAM
★ 신선하고 영특한 스크린 세이버, 천리안 캐스트	go INTERNET
★ 내게 바른말을 해봐. 월간말	go MAHL

재접속(LOG), 접속을 종료하시려면 엔터키를 치십시오>

접속을 종료할 계획이니 엔터를 치시면 되겠지요?

'-'표시가 나오는 경우 전화를 끊으시려면

+를 연속 3회 입력하시고 (ENTER키 입력않음)

OK 가 나오면

ATH0 <ENTER키>를 치십시오.

뭐라고 나오지요? 복잡하니까 무시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초기 화면이 나올거예요.

전화를 끊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첫째는 F10을 눌러서 메뉴가 나타나면 그중 전화 끊기
를 선택해서도 되고요 두번째로 ART + X(+는 동시에 누른다는 의미로 썼어요)를 누르셔도 되
고요. 세번째로 ctrl + F9을 누르셔도 되구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전원을 끄는 방법도 있지요. 그
렇지만 마지막 방법은 컴퓨터에 무리가 가겠지요?

전화를 끊을 거냐고 물어 봅니다. 그러라고 하지요.

이제 전화를 들어보세요.

신호음이 떨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사이버공간에서 탈출하신겁니다. **천리안**

교사의 의견

어린이 건강교사를 제안하며

이 현경 (남부, 새터어린이집 교사)

편집자주 : 이현경선생님은 지난 1년 동안 어린이평화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동철학이 변화한 부분을 정리하며, 어린이건강교사로서 아이들을 보육해야한다는 취지로 이 제안의 글을 쓰셨습니다.

작년 초쯤 어린이집 생활이 지겨웠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에서 오년째로 접어든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졸업 후 5년, 10년이 흐르면 내 모습은 어떨까, 적어도 자기철학이 생겨 왔다갔다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4년을 채운 그때의 모습은 내일에 확신을 가질 때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탁아활동을 운동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

가 한몸 어린이건강교육을 받기로 했을 때는 이곳 저곳 둘러보는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교육이다 하면 거기에 내 철학으로 세울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가 보았지만,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었습니다. 한몸의 교육은 지나간 1년동안 제게 생각할 꺼리를 많이 주었고 그와 동시에 제가 어린이집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비상약으로 진통제, 소화제, 해열제등 약품을 꼭 준비해 두었고, 식단을 짜 때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니, 짜파게티니, 탕수육 등을 간식으로 만드는 것을 대단한 일처럼 여기며 그제 아이들을 위하는 편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다고 장난감을 이것저것 준비해두고 환경판을 만들고 최신 유아교육장비(볼풀, 컴퓨터, 놀이시설)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철학의 부재를 외칩니다. 어떤 가치관에 의해 교육되어지느냐에 따라 사회가 다르고 세계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어린이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보는 사람이

어떠하나에 따라 그 아이의 일생이 다릅니다. 지택연 소속 어린이집이 '우리는 우리의 철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글로 정리하려면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을 거부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우주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이는 우주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든 몸들과 한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각각의 몸들과 한몸으로 만나는 것은 살리는 만남을 뜻합니다. 살리는 만남을 함으로써 평화스러운 건강한 평화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해, 죽음의 만남이 아닌 살리는(살림) 만남은 교사와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터 어린이

제가 있는 새터도 마찬가지로 10년의 나이를 정리해보고자 하지만 그 철학이 글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란 누구입니까? 아이는 교육의 대상입니까? 보호의 대상입니까? 어른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를 대상(對象)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모유에 가깝다느니, DNA를 첨가했다느니 하고, 분유는 유기농법이니, 새쌀이니 하고, 종이 기저귀는 팬티용이니, 젖부르지 않는다느니 하며 앞을 다투어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광고합니다. 교육도 영재교육, 조기교육, EQ학습, 태어나서도 늦다고 태안에 있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건강교사는 아이를 대상으로 보는 것

아이와 교사는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면서 우주적인 주체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건강교사는 한몸철학으로 아이를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보이고, 가르치고, 놀게 하는 그래서 온전히 아이의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보육교사라는게 행복하다는 것은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온몸이 기뻐지는 것을 간혹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우리를 반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을 담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온몸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살리는 만남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적인 존재로 보며 내가 살기 위해 남은 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경**

탐방기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 봉사단'

편집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급문화를... 세계화!, OECD가입!, 국민1인당 GNP1만1천불! 등

국가가 아무리 선진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아직도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인 통합은 멀기만 하고 나만 잘살면 되고 나만 고상하게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서울의 하늘만큼 갑갑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사랑의 문화봉사단'이 바로 그 따뜻한 사람들로서, 어렵사리 연락처를 알아내어 황급히 방문을 하게 되었다.

사랑의 문화봉사단 (단장 윤화자, 전화 542-5131)은 문화소의 계층을 위하여, 지역간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적 봉사 에 나서고 있는 문화운동단체로서 지난해 3월 12일 창단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단체를 비롯 하여 농촌지역등 상대적으로 문화빈곤에 있는 사람들에게 클래식공연, 사물놀이페 공연, 인형극공연, 건전한 대중가요공연 등으로 또다른

생활의 활력을 복돋아 주고 있는 곳이다.

사랑의 문화봉사단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한 뜻을 모아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회장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 위원) 산하 실행 기구로써 문화소의 지역을 적극 찾아다니며 문화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봉사단이다.

사랑의 문화봉사단 안에는 3분류의 봉사자가 있어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에는 연1회 무료공연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연봉사자와 출연자 및 공연장소 섭외, 무대장치, 촬영등 공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봉사자, 그리고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봉사활동을 돕는 후원봉사자 등으로 구분된다

사랑의 문화봉사단 전면에 나서는 공연 봉사자들 중에는 성악가 박인수씨를 비롯하여 가수 이동원씨와 안치환씨 그를 사람과 나무, 실내악 합주단, 서울이무치지 등 그 면모는 다양하다.

그동안 '사랑의 문화봉사단'은 지난해 4월 김포양곡종합고등학교에서의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SOS 어린이마을, 음성꽃동네, 한빛



「사랑의 문화 봉사단 공연후 아이들과」

맹아학교, 정립회관 등 30여개의 단체를 돌며 공연활동을 펴왔다. 공연장소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좋은 문화공연감상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방문을 꺼려하는 곳에 뚫뚫한 공연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공연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이들은 분명 이사회 의 보배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일을 하나는 필자의 우문에 "공연 대상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데 아직은 정서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문화에 젖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개념 정립이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여 20년 후 아이정서가 안정되지 않을까 해요" 변양자총무부장의 현답이다. 고급문화란 굳이 웅장한 클래식이나 실내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일 것이다. 덧붙여"우리 단체는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기에 소외대중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대중을 대상

으로 하는 공연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월23일 하는 '학교순회프로그램 프리뷰공연'은 9회로 계획된 학교현장공연을 하기 위한 시범적인 공연이죠. 이공연이 끝나면 9개 중고등학교를 돌며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현란한 옷과 춤으로 가득한 10대 가수들의 중고등학교에서의 TV녹화현장을 어렵지 않게 보아 왔던 우리청소년들이 조금은 무겁고 차분한 클래식공연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아 이렇게 좋은 곳을 이제 알게 되었네!' 하며 무릎을

칠 독자를 위하여 이용방법을 물으니"저희는 한지역(시설)에 년1회 공연을 원칙으로 하고요, 문화공연을 원하는 곳에서는 공연신청서를 2-3 달전에 보내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공연의 대상자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청소년, 유아, 주부 또는 지역의 포괄적인 주민등으로 그래야만 저희가 대상에 맞는 좋은 공연을 기획할 수 있으니까요. 유아다 그러면 주로 인형극, 청소년들은 연극이나 경쾌한 클래식, 노인은 전통민요, 판소리등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신청기관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주기도 하지요"더 자세한 사항은 사랑의 문화봉사단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

사무실을 나오며 전기를 맞은 것처럼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인형극 공연을 주체하고 싶어했던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발걸음이 가볍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이 사회는 아직은 살 만한 곳이란 생각에 봄바람이 더욱 정겹기만 하였다. [박영민]

이쿠노에서 온 소식

변미양의 타향살이 이야기

변 미양 (지탁연 회원, 일본 오사카 거주)

편집자주 : 지난 2월 결혼 축하모임을 하고 일본 오사카로 떠난 변미양씨가 조국의 벗들에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먼 이국으로 시집을 간 변미양씨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벗들에게 대략(가능한 한) 소식지로 변미양씨의 근황을 알게 될것입니다.

일본이라지만 오사카시 이쿠노구는 마치 부산의 어느 동네를 온 것 같은 느낌이다.

한국과는 반대인 도로 진행 방향이며 읽을 수 없는 간판 글씨가 낯설게 다가오지만 잠시 길을 걷다보면 간간이 들려오는 말소리에 오히려 당황하게 된다.

“아줌니, 어대가 -?”

우리네 이웃과 전혀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한국인이 내가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 여기가 정말 일본이야!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면 올 수 있는 가까운 도시 오사카에서 그 가까운 거리만큼 비슷한 사람들과 나는 함께 살게 됐다. 아직 모르는 것이 태반이지만 조금은 익숙하게 다가오기에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싶다.

그러나 정말 이곳은 일본이다. 일본 한 구석

에 6-70년 3-4세대를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을 뿐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왔기에 한꺼번에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굴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 굴곡의 한 골짜기에서 이제 살림을 차린 나는 어찌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어쩌면 언제까지 나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그리운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워가는 이쿠노 타향살이를 들려주고자 한다.

「어머, 강산에!」

3월9일 일요일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정리며 살림살이 채기기에 조금은 피곤한 나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어머니처럼 돌봐주시는 제일 동포2세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함께 근처 구민회관에서 하는 콘서트를 보러가자고 하셨다. 어떤 공연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따

나 나섰는데 걸음이 더딘지라 가까운 거리지만 공연시간 보다 십여분 지나서야 도착했다. 불 꺼진 공연장으로 들어가 뒷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어머, 저게 누구야! 무대 뒤에는 잘 알고 있는 가수가 앉아 있었다.

구민회관 홀이니 무대가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가수 강산에가 기타를 들고 앉아 더듬더듬 일본말로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오늘 객석에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 저희 부모님도 고향이 북쪽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도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제가 커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라구요」라는 노래입니다.”

와아.. 한국에서는 청바지 광고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네.

객석의 관중들은 아마 잘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성의 있는 자세로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한국에서 온 가수에게 애정을 보냈다.

어두운 조명 빛으로 살펴보니 오늘 공연은 “제 2회 고베 대지진 피해 외국인을 생각하는 콘서트”로 ‘코리아 자원활동가협회’에서 준비한 행사였다.

고베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오사카 이쿠노에서 같은 타향살이 한국인들이 모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돕자는 공연 이었다.

콘서트에는 세 팀이 출연했는데 그야말로 짬뽕이었다. 한국에서 온 진짜 한국인 강산에,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름을 - 여기서는 본명(本名)이라고 한다 - 쓰며 활동을 하고 있는 도쿄 비빔밥 클럽, 일본이름을 쓰며 살고 있지

만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 아라이에이지.

공연시작에는 강산에가 무대에 섰고 다음으로 도쿄 비빔밥이라는 랩의 변인자라는 가수가 드레스에 장고를 댄 특이한 차림으로 등장한다. 팀 멤버들은 기타, 베이스, 드럼 등이 있는데 양악기와 우리 악기의 비빔밥 무대였다. 이 가수는 꽤 유창한 발음으로 갑돌이와 갑순이 등 민요를 중심으로 노래 불렀다. 좀 나이가 있는 청중들은 여기저기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며 신바람을 내었다. 마지막으로 아라이에이지, 이 가수는 「청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긴 노래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도 청하를 찾아가며 느끼는 여러 감상을 부른 것으로 일본어로 부르는 노래 가사에는 아리랑 후렴이 들어가 있다.

재일 동포들의 한국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 일본에서 태어난 후 성년이 된 뒤에야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갈 수 있었던 많은 재일 동포들에게 자신의 마음인양 같은 노래를 불러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고향이란 어디인가,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기에 잘 알지 못하는 가수가 잘 알 수 없는 모국어로 노래해도 조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열심히 듣고 박수 치며, 조금은 어색한 차림이지만 장구와 기타의 장단에 어깨춤을 추면서 고향의 민요를 따라 부르고, 일본어로 고향을 찾아가는 일본가요를 만들고 부르며 눈물짓는 것일까.

아마도 한국에서 사는 30년 동안 진정 나는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정녕 조국이 무엇인지 가슴 뜨겁게 눈물지은 적이 없었는지 모른다. 공연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아쉽게 집을 찾아 흩어지고, 나도 이제 일본 오사카 이쿠노의 집으로 더딘 발걸음을 옮겼다. **[계속]**

광 고

어린이 집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입니다.

인의협에서는 4월 14일부터 4월20일 까지 인도주의 실천주간을 정하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에서 소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하려합니다.

이 기간중 4월19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선생님들과 어린이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어린이집 여건상 주치의가 정해져 건강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여 선생님께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 1만 개소가 넘고 아동수 32만명이 넘었습니다. 1997년 0-5세 아동 400만명, 취업모의 0-5세 아동 180만명, 보육대상 아동의 수는 100만명이나 됩니다.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낮 시간 동안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 문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건강관리 방식, 건강 담당 교사의 역할, 질병의 이해, 환경 관리, 기본 의약품 관리, 의료기관 이용 방법, 지역 주치의 선정에 이르는 많은 어려움을 서로의 교류를 통하여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은 어린이집 건강 관련 선생님과 인의협 소속 소아과 의사와의 작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진료 기록부, 예방접종등 건강관련 서식, 구급의약품들을 포함한 약품, 자재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주치의를 확보하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임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1997년 4월 19일 오후 3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장

◆ 대 상 : 전국의 어린이집 건강 관련 선생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사 기획국

◆ 내 용

1. 점심 식사
2. 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의 소개와 예방
3. 구급 전담과 사용 방법 소개
4. 어린이집 건강 교육프로그램 소개와 토의

※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탁아소 별곡

올망졸망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 단식이라도 먹자

육성소도구서 먹고싶고 많이 만나고 싶단 말

이모 : 애들아! 우리 오늘 물도 안 나오는데 점심 먹지 말고 단식할까?

윤덕 : 이모 우리 단식하자

이모 : 응? 단식을 먹어?

그날 오후는 법만 70에서 금식을 면하여 먹었다.

◆ 조기알 먹어 봤는데

생선가게에서 (먹어보고 생선가게 갔다.)

진혜 : 이모 고기들은 왜 뼈다귀가 다 아 있어?

(오징어 가르키며) 이것도 뼈다귀가 다 아 있어.

이모 : 아니 없어

진혜 : (조기를 가르키며)저번에 저거 알먹어 봤는데.....

이모 : 에..응-!! 갑자기 무슨소리야...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뭘 소린지...

(청어알은 찢어도 조기알은 준기억이 없는데...)

◆ 임꺽정 보고

영아와 모자랑 함께 영아를 낳는 제니가, 영아와 모자랑으로 임꺽정, 영아를 영아로 만났단다...

록남(임마역) : 여보 아기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겠어요.

동욱(아빠역) : 잠깐만 기다려.

록남(임마역) : 여보, 빨리 서둘러요. 아기가 많이 아파다니깐요.

동욱(아빠역) : (그동안 두 아이 있던 병대를 업고 물고 담배 피는 생을 여러 번 돌려 오... 나뭇잎)

임꺽정 보고-- 록남(임마역) 동욱(아빠역) TV 임꺽정 판야...

◆ 효태? 김효태?

7월달인 효태(김효태)는 영아에게만 명상 보물단지 같은 존재. 그러다 보니 작은 영아들의 마음 대상이 된다.

채란 : 효태야~. 효태야~ 경민 : 아니야~ 김효태야

채란 : 아니야~ 효태야~

(옆에 있던 이모를 보고는) 그렇지? 이모~(그리곤 이모가 말 할틈도 안주고)

거봐! 효태지

경민 : 아니야~ 김효태야~ 그렇지? 이모~(경민이 역시 이모 말 할틈고 안주고)

거봐! 김효태지

이모 : 진혜

좋은 그림책 소개

크릭터

고 영미 (안산, 진달래동산 교사,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회원)

토미웅게러 글·그림 / 장미란 옮김 / 시공사 / 값 6,000원

계절이 쏜살 같이 흘러서 이제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하다.

창 밖에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면 어디로든 놀러가고 싶어 엉덩이가 들쭉들쭉해진다.

매일 매일(비가 안 오면) 동네 놀이터로 나들이를 나가는 틈에 벌써 '썬텐'이라도 한 듯 얼굴이 가무잡잡해져서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심심찮게 받곤 한다.

날씨가 겁나게 좋던 휴일날 서점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고르러 나갔다. 그 많은 책중에 특이한 주인공을 가진 재미있는 그림책을 발견해서 주저없이 손에 들고 왔다. 책 제목은 「크릭터」 보아뱀 이야기이다.

정그럽고 무섭다는 선입견이 머릿속에 꽂혀 있어 차 있는 뱀이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등장하는 크릭터.

아프리카에서 파충류를 연구하는 학자가 파리에 사는 어머니에게 도너츠 처럼 둥글게 생긴 소포를 보낸다. 소포를 풀어본 어머니는 깜짝 놀란다. 선물은 뱀이었으니.

그러나 보아뱀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애완동물 처럼 잘 해주

신다.

크릭터는 우유도 먹고 책도 보고 침대에서 잔다. 옷을 입고 할머니가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가서는 자기의 몸을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들며 공부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 주기도 한다. 나중에는 도둑을 잡아 훈장도 받고 크릭터에 대한 미술가에 의해 동상도 세워지고 크릭터의 이름을 딴 공원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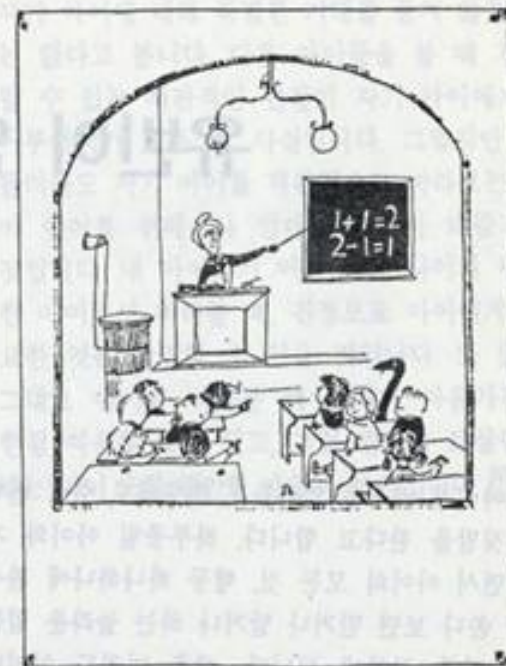
협오는 확실히 학습된 것이다.

뱀을 자주 본적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은 성인들이보다는 선입견이 없어서 인지 읽어주니 무섭거나 징그럽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이 너무나 재미있어 한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는 가만히 보고 있다. 또 읽어 달란다.

어디가 제일 재미있나니깐 서슴없이 학교에서 크릭터가 아이들과 노는 장면이었다.

역시 아이들은 어른이든 동물이든 자기들과 놀아주는 대상이 제일 좋은가 보다.

작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세 가지다. 첫째는 주인공이 독특하고 둘째는



선이 가늘고 절제가 되어있다. 만화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셋째는 색이 요란하지 않다는 것이다.

색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작가는 색을 아꼈다. 물론 오래된 책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색을 아낀 듯하다. 초록, 빨강(붉은색), 검정 단 세가지 색만 썼다. 어설프게 요란한 애니메이션 그림책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흰 종이에 마음껏 상상력을 동원해 선만 사용해 그린 그림이 얼마나 진솔한지는 아이들과 생활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색이 절제되면 상상력이 증폭될 수 있다.(물론 색이 화려해서 너무 멋진 그림책도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마녀위니」)

작가 토미웅게러는 무시무시하고 징그럽다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대상을 주인공으로 등장시

켜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강도, 박쥐, 뱀... 이런 것들이 주인공인 그림책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릇된 가치관.선입견을 재미있는 풍자와 해학으로 아이들에게는 더 없는 재미를 선사한 작가는 2차 대전을 겪으며 아주 힘들게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지하실에서 3개월을 갇혀 산적도 있다고 하니 섬뜩하고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그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가 보다.

남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장전화시켜 그림책으로 그려낸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번 동물원 견학에는 꼭 파충류관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 보길, 보아뱀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한영민**

육아일기

유빈이 엄마의 욕심

나 은미 (고양시 오손도손 어린이집 교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아이와 지내면서 아이의 모든 것,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다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하는 놀라운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생후 며칠도 안지나 엄마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백일이 갓 지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른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 슬프게 운다는 등의 아이를 키워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설마 그럴리가 하는 일들을 늘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엄마에게서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아이다, 혹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유난히 욕심이 많은 우리나라의 평범한 엄마가 되기를 거부했던 유빈이 엄마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육아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매달 유빈이의 발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다. 아이에 따라 약간의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앞서 발달하는 면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빈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발견하면 이것저것 찬찬히 관찰하면서 어느새 유빈이와 비교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유빈이보다 20일 늦게 태어난 아이를 보았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두세 걸음 걸었는데 그걸 보고 엄마는 깜짝 놀랐답니다. 11개월이 된 유빈이-앉고 기어다니는 것까지는 빨리한 편임-는 붙잡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일어서서 걷다니, 그걸 본 순간 엄마는 '아이에 따라 발달이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다'는 평범한 상식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우리 유빈이가 너무 늦구나. 어떡하지'하는 걱정에 몸이 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꾸만 유빈이를 일으켜 세우고 "유빈아, 이제 일어서야지. 발해는 걸음마도 하잖아" 하며 걸음마 연습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머리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만 초조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 유빈이가 어찌다 말 비슷한 소리를 내면 엄마 급세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지? 유빈이가 '사자'라고 말했어"라고 유난을 떨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유빈이에게 "유빈아 저건 '새'야. '새' 해봐. 이걸 '토끼'야."라고 하며 말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음마나 말 연습을 시작하고 보니 어느새 '유빈이가 잘 따라 주었으면'하는

기대를 품게 되고, 유빈이가 잘 따라 하지 못할 때 실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문득 '아! 내가 왜 이럴까? 유빈이가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자꾸 말을 하길 바라는거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유빈이도 표현은 못하지만 엄마의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엄마 맘대로 기준을 세우고 유빈이에게 따라주길 강요한다면 지금껏 그토록 경계했던 극성 엄마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겠구나!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피아노다, 영아다, 수영이다 배우느라 밥도 못 먹고 잠잠한 밤중까지 돌아다니는 이웃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쓰러워 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유빈이도 그렇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요 며칠 동안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라고 해서 자기 아이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품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아이들을 볼 때 견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이 자기 아이에게는 이루어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자기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내 아이이기 이전에 그 나이의 평범한 아이로서 바라볼 때, 진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의 마음가짐은 한결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런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 또한 편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백영]

새 책 소개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E.Q를 높여주는 육아제한 20-

오숙희 추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음
육아 · 여성 실용 / 국판 / 200면 / 값 5,500원

'우리 아이는 놀이방에 있는 동안 무얼 하며 지냈을까?'

지택연에서는 놀이방,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모두 여섯마당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아이들 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아이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만3-6세 아이들의 E.Q(감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드러내보여, 전에는 그냥 '아이니까'하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아이들의 말과 몸짓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하고 그 깊이만큼 성숙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부모들과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거나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분, 혹은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읽기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접하고

위 양자 (본회 부회장)

3월 25일자 한겨레신문에 “교육·보육” 유아학교 추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개위는 24일 4차 교육개혁과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고,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도 희망시설은 유아학교로 통·폐합해 유아교육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아학교는 3살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탁아, 보육기능을 같이 맡도록 하고, 맞벌이 학부모 등의 요구에 따라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놀이방 등 유치원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유아학교의 시설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이들 시설을 유아학교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개위는 이와 함께 유아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다지고, 현재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유아교육 관련 기관을 이른 시일 안에 일원화하기로 했다면서, 유아학교로 전환될 경우 국민들의 유아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체계가 확립돼 선진국과 유사한 의무교육 단계 이전의 ‘국가인력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새마을유아원이었다. 1982년 1월 25일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2 ~ '86년까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되어 유아교육관련 유사기관들이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되어 내부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행되다 1991년 ‘보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어

린이집’을 설치 운영 해온 지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다. 교개위의 안대로 유아학교가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따라 종일반을 운영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인지 의문이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대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시설을 확충한 것은 그만큼 ‘보육’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즘, 맞벌이 가정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또래집단 형성이 되지 않아 아이다운 어린시절을 보내지 못함으로써 인성형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어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을 함께 담아내는 ‘보육’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되었고, 그런만큼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의 보육시설들이 설치되었고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제로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사교육적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이 어느 선진국에도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 무교육 이전의 시절에 공교육적 체계 속에서 혜택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일원화된 행정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체제의 일원화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공교육적 기반을 다지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원칙이 없이 만들어지는 어떤

교육개혁도 <새마을 유아원>처럼 장기적일 수 없고, 아이들이 참으로 반기는 개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보호자가 생활을 지켜줄 수 있고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아이들은 짧은 시간동안의 ‘교육’만을 원할 것이고, 보호자가 생활을 지켜주지 못하거나 또래집단 형성이 안되는 아이들은 필요한 만큼의 ‘보육’을 원할 것이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가장 잘 답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일원화하고 예산지원을 강화한다면 공교육적 기반 마련과 선진국과 유사한 의무교육단계 이전의 “국가인력 관리체계”가 확립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이제 막 시작해 자리를 채 잡으려고 하는 시기에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이라는 시설 중심의 잣대로 유아학교로의 통·폐합을 위해 시설요건을 완화하여 전환을 쉽게 한다는 발상은, 유아학교의 양적확충을 위한 방편은 될 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OECD가입국이 된 나라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그 제도와 체계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영·유아교육개혁은 영·유아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뭔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급함으로 편의적이거나 전시행정처럼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박영인]

목소리

썩썩하고 힘이 센 엄마

강 영신 (웅기종기 어린이집 교사)

호린 금요일의 아침도 어김없이 두 녀석 데리고 기저귀 가방을 메고 택시타고

경민: "엄마 어디가"

엄마: "글쎄 엄마 어디 가지지"

경민: "웅 웅기종기"

엄마: "경민이는?"

경민: "나는 효태랑 올망졸망에 있지"

엄마: "그래 엄마 웅기종기에서 끝나고 올테니까 효태랑 있어"

한물교육도 받아야 하고, 학교공부도 계속해야 하고, 아무튼 할 일 많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 같다.

매번 수련회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나간 얼굴들도 그렇다.

모두가 다 아이들 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요즘 내게 듣는 말들은 왜 힘든데 다시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 질문에 확실히 이렇게 답한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숫자를 덜 알고 글자를 늦게 알더라도 여기서 내가 가르치는 아니 우리가 가르치는 아동관처럼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썩썩하고 힘이 센 엄마는 큰 차를(버스)타고 출근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오전간식 먹고 힘이 솟은 아이들

불꽃장을 빠져나 온 색색의 공들과, 제자리를 못 지키는 장난감, 그리고 온지 삼일 된 녀석의 울음소리로 정신이 없다.

출산휴가와 양성교육을 마치고 다시 출근하던 날

그날은 마치 멀리 시집간 딸이 친정집을 찾아오는 그런 설렘이었다.

지금의 다짐은 다만 새로운 소모임인 인형극을 활성화시키고 열의에 탄 지금의 의욕대로 앞으로 내내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지탁연에 돌아와서

민 은홍 (남부, 어깨동무 어린이집 교사)

내가 지탁연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 7월 경이었던 것 같다.

유아교육을 졸업한 후 일반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는 분이 지탁연을 소개해주셨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되어 서울로 올라와 지탁연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경아(당시 교육부장)씨의 소개로 1991년도에 새터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1991년-1993년까지 새터에 근무했었다.

새터에 근무하면서 (지탁연 소속의 어린이집이 거의 다 그럴 것이다.)전적으로 모든 일과 많은 활동이(새터는 교회와의 연계부분도 있었다.)교사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운영되면서 만 2년이 지나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또한 제 충진할 시간적 여유가 주워지지 못해서 무척 힘이 들었고 더 큰 이우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의 부족을 느끼면서 고민이 많이 되어서 좀더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겠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도 컸기에 새터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도했는데 뜻대로 되지못하였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지탁연과 나에게 일어났을 것이다.

솔직히 어깨동무로 오면서 딱히 지탁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탁연을 떠나 5년만의 귀향인 셈이다.

지탁연을 떠나 여러 사람들과 여러 곳에서 몇 해 동안을 지내면서 지탁연소속에서 보다는 교육.보육을 위해서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늘 내 머리에 기억되어 나를 나태함에 빠져들지 않게 막아주었다.

최근 4년 동안 일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별로 교육의 질을 높여려는 움직임이 적고 형식적인 교육에 치중되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지탁연 교사들과 같이 열정을 가진 교사에게 전문성만 더해진다면 좋은 교사진들이 확보될 수 있을 텐데...

지탁연에서 일했던 시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되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컸던 시기여서 그만큼 그 시기의 모든 것에 애정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지탁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지탁연 사람들과 사람을 사귀는 법을 배운 뒤로는 다른 부류사람들을(보통사람(?)사귀는데 어려웠다. 지탁연 사람들은 정품이었으니까!

다시 돌아와 생활하면서 조금은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내 방향이 종지부를 찍어야 될 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은홍**

소식과 소식

제13회 한국여성대회개최

제13회 한국여성대회는 3월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주체로 회원단체 회원과 가족, 시민등 약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3회 한국여성대회는 3.8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85년부터 매년 치러진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여성학자 오숙희씨와 여성의전화 부회장 이상덕씨의 사회로 지은희 여연 상임대표의 개회사, 회원단체 기수, 단체장입장, 내외빈 소개, 여연 10주년을 되돌아보는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비디오 상영, '올해의 여성상 수상', 축하공연, 지킴이상 수상, 여성운동의 '디딤돌', '걸림돌'선정,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등으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여연 1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한국여성대회가 더욱 빛을 내었고 참가자들도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는 차분하면서도 열광적인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3·8여성대회

사회복지사업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 세미나개최

국회복지포럼에서 주체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세미나는 3월14일 오전10시에 국회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자, 학계, 전문가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올바른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이성재의원의 사회, '사회복지사업법의 올바른 입법 방향-최일섭 서울대교수',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정무성 가톨릭대교수,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차용호', '사회복지법인의 활성화 방안-조남번', '민간복지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이창호'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사회복지법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에 국가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에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적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각부문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제 발표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 공청회개최

3월 24일 대통령 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최한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교개위 위원인 서울대 이성진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해 학계, 유치원, 보육계, 학부모 대표가 각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본회에서 정책개발위와 지역장 등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지역위원회소식 ◆

■ 인천보육교사회

- 세쌍둥이 어린이집에서 '세쌍둥이 제 7주기 추모제'를 3월30일에 있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예술어린이집의 친구들의 노래와 보육교사 풍물패 '메나리'의 길놀이 및 풍물 공연,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를 찾아서'공연이 있을 예정이므로 인천보육교사회 회원들은 모두가 참석할 것입니다.
- 4.5월에 걸쳐 신진교사교육이 계획되어있습니다.
4월 18일 : 인간관계프로그램,
4월 25일 : 지탁연 보육운동사와 전망,
5월 2일 : 전문인으로서의 보육교사, 5월7일: 교육철학.
- 4월13일에 확대운영위로 '중간지도력 훈련'을 합니다.
내용은 「간부의 자세와 역할·조직을 강화시켜내는 방법」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 「회의진행법」 등이고 강사는 평화로 가는 시민문화센터 부평지구 지구위원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 수원지역위원회

- 수원지역위원회는 신입.경력교사들이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1강 : 교사로서의 자기진단(이주영 수원지역장)
2강 : 지탁연조직의 이해(임남희 부회장)
3강 : 아동관 관점 세우기(정희연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사회복지정책과 보육사업(최현숙 전회장)

♣ 사람들 ♣

♥ 결혼하십니다.

- ♡ 교육연구부장 박성연선생님이 (5월3일 프란시스코회관에서 3시30분)
- ♡ 인천지역위원회 전선경선생님 (전 민보련사무국장. 5월 11일)
- ♡ 수원지역위원회 새내기 오현정선생님이 3월30일에 결혼을 합니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 출산하셨습니다.

- ♡ 수원지역위원회 신경숙선생님이 본인과 국화빵 같은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보내주셨습니다.

◇ 한울림출판사에서 본회 이현경 교육연구부원이 집필한 『아기는 감각으로 세상을 배운다 I, II - E.Q를 높여주는 감각놀이 99가지-』 (박찬옥추천\ 이현경지음\ 값6,5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엄마로서의 역할을 익히고 다들어야 한다. 그리고 엄마가 되고 나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엄마를 위해 쓰여졌다. 또한, 엄마 준비를 못한 새 엄마가 되어 당황해 하는 엄마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 따라서 모든 엄마에게 이 책은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 → 박찬옥 교수의 추천의 변입니다.

◇ 보리출판사에서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보리 편집부 역음\ 값5,5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리출판사가 왜 이책을 엮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요즈음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 또 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들과 교사는 아이들 못지 않게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육이란 것이 정말 무엇인지,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책을 엮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글 16편을 모았습니다."라고 합니다.

◇ 관악주민연대·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에서 「1996년 관악구 민간복지시설 편람」을 보내주셨습니다.

◇ 영산대학원불교대학교 출판국에서 '청소년이데아와 전환시대의 성직자교육'을 보내주셨습니다.

● 연합회 3월 활동일지

3/3 집행위원회의

일본연수단 선정위원회

9 제13회 한국여성대회

11 정책개발위원회회의

13 (가칭)한국보육교사회 건설준비위원회 1차회의

14 교육소모임

17 집행위원회의

2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면담

24 지도력 훈련프로그램 1차 준비모임

26 수련회준비팀 1차 모임

27 정책개발위원회

28 교육소모임

일본연수팀 사전모임

29 교육연구부 모임

보육계 동향

■ 제 3회 민간.가정 보육시설 개원 설명회 및 운영사례 발표

10여 년간 올바른 아동보육과 보육시설에 대해 고민해온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와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에 대한 모색의 한 방안으로 4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요령설명회]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사례 발표회] [직장어린이집 개원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정 및 신청방법 ◆

일 시 : 1997년 4월 24일(목)~25일(금)

장 소 : 여성평화의집(02-275-8505)

(동국대3호선(전철역하차, 장충동 동사무소 맞은편 소재)

◆ 접수 문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02-275-8505)

한국보육정보연구소 (02-271-1547, 268-3954)

◆ 내 용 ◆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사례발표회
1997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1시	1997년 4월 24일(목) 오후2시~5시
대상: 민간, 가정보육시설(운영 예정자)	대상: 모든 보육시설(관련자 및(운영 예정자)
◇ 보육사업개론 ◇ 설치 인가신청 및(신고서(내기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과 지침 ◇ 설치계획세우기-지역선정, 예산등 ◇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와 운영방침 세우기 ◇ 일과 구성과 분반, 교사채용 ◇ 필요한 비품 저렴하게 구입하기 등 ◇ [기본생활공간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 실제 보육시설을 보듯이 설명합니다.	◇ 영아보육 ◇ 방과후 아동보육 등 보육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무자와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에 도움이 될 내용은 시청각자료와 함께 합니다. ◇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운영사례 발표 자리는 개원을 앞두신 분들의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결해 드릴 것 입니다.

직 장 어 린 이 집 개 원 설 명 회

일 시 : 1997년 4월 25일(금) 오후 2시~5시

대 상 :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관련자

- ◇ 직장보육시설 개요
- ◇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 형태
-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방향 - 원장과 보육교사 선임, 대상아동, 보육시간, 반구성,보육료 등
- ◇ 직장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가 신청/신고서
- ◇ 직장보육시설 관계자가 알아야 할 보육 법령
- ◇ [기본생활공간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 실제 보육시설을 보듯이 설명합니다.

보육교사
일선연수

보육교사 일본연수

일 시 : 1997년 6월5일(목)-6월8일(일)

장 소 : 오오사카

비 용 : 850000원(여권비용 50000원별도)

** 신청금 10만원 선납. 75만원 후납 **

기 타 : 연수증 수여, 기념사진증정, 기념품증정, 자료집증정

◎ 연수안내

★ 보육교사일본연수를 기획하면서..★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일본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보육운동사적으로 볼때에도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본 연수를 기획하면서 일본의 보육 현실을 알아보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혼합연령보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사카지역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보육 현실의 발전을 위해, 일본 연수를 기점으로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선정하여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때와리보육이란?

참조 : "일본보육연장을 기다려" 유아교육 1996년1월호 연재

"다때와리"란 직역하면 "총적보육"이라 하는데 즉,연령별 반구성이 아닌 3, 4, 5세가 혼합으로 반편성을 하여 보육하는 혼합연령보육을 말합니다.(이하 혼합연령보육)

이는 일본의 사회적 상황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최근의 일본의 추세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 해도 대부분이 한 자녀만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독선적이거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에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연령별 또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빠나 동생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아인 3,4,5세의 혼합연령으로 반을 구성하여 보육하게 된 것입니다. 혼합연령보육을 하는 보육소(일본 보육시설의 명칭은 보육소이다.)도 각기 서로 다른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다때와리 교육에 대한 강연과 보육시설 방문 체험,보육소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때와리보육에 관한 입체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다때와리보육에 대한 강연

▷ 보육소방문

▷ 보육소선생님들과의 간담회와 유아교육 강습회

일본 연수에서 교육되고 있는 생생한 교육 내용을 일본 선생님들께 직접 배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라포르시시스템 오사카 어린이교육센터

공부위주의 학원이나 지능개발 학원이 많은 속에서 정신교육,심성교육,심신단련,생활교육등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영재교육방침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관서제일의 유아영재전인교육기관이다.영재교육이지만 생활교육을 통한 가정과 연관된 영재 전인교육이 특징이다.

▶ 국제아동문학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관련 출판물 전시되어 있다.

▶ 민족박물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 의상등 생활양식을 볼 수 있다.

▶ 이케노진데스 유아교구백화점

지능 완구 매장으로 유아교육 관련 교재가 전시 판매되는 장소로 견학과 함께 교구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일정안내

* 앞쪽 항공사명, 연차경로, 연차 변경도 있습니다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6/5 (목)	서울 오오사까	NH172 전용버스	10:00~11:55 13:30	서울 김포국제공항 제1청사 2층 신한은행앞집결 서울출발 오오사까 도착 중식후 라포르시시스템 오사카여객기 교육센터 (관서 제일의 유아 영재전문교육기관) 강연 - 다메오리 교육에 관하여 HOTEL : MITSUI URBAN (06-374-1111)	점심:기내 저녁:현지
제3일 6/6 (금)	오오사까	전용버스	오전 오후	(오전) 보육원 공식방문 - 다메오리 교육에 관한 견학 중식후 이케노진대쓰 지능연구개발 방문 일본 보육소 선생님들과의 간담회와 일본유아교육실제 감상 HOTEL : MITSUI URBAN	아침:호텔 점심:현지 저녁:한식
제2일 6/7 (토)	오오사까	전용버스	전일	(오전) 나라로 이동 → 동대사, 사슴공원 등 관광 고도로 이동 국제아동문학관 및 민족박물관 관람후 청수사, 이조성 등 관광 오사까 귀환후 호텔 투숙 HOTEL: MITSUI URBAN	아침:호텔 점심:현지 저녁:한식
제4일 6/8 (일)	오오사까	NH171	09:25 11:05	오사까 출발 서울도착후 해산	아침:호텔

◎ 여행 조건

항	공	NH 항공 (아나항공)
숙	박	비즈니스급 Hotel (2인 1실 사용/ 독실사용시 추가요금)
식	사	조. 중. 식 (기내식 포함) - 1일 3식
고	통	편
관	광	및 연수
현	지	안내원
공	항	세
T	I	P
여	행	자 보험
비	자	비
여	권	비
특	기	사 항
비	고	

■ 한국어린이육영회

본회 치료교육연구소는 주한 불란서 대사관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주제 : 만성학습피로증
2. 일자 : 1997년 6월28일(토)
3. 장소 : 한국어린이육영회 5층 대강당
4. 내용 : 가) 학습장애의 조기 징후 - 조기학습과 그 효과
Daniel Mellier(프랑스 루앙 국립대 심리학과 과장)
나) 난독증(難讀症)과 만성학습피로증
김양희박사(한국어린이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장)
다) 난산증(難算症)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미정
5. 문의처 : 202-1507~7, 425-1674

■ 어린이 생활예절 교실

본회에서는 학령전 어린이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기본생활예절 및 전통예절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생활예절 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1. 교육내용

구 분	내 용
전 통 예 절	한복입기, 절의 기본자세와 동작, 공수하기 등
기본 예티켓	인사하기, 호칭부르기, 고운말하기, 질서지키기 등

2. 대상 및 수용인원 : 취학전 어린이, 1일 160명까지 교육가능
3. 이용기간 및 시간 : 4월 ~ 6월/ 9월 ~ 11월(월~금)
오전 : 10:00 - 12:00 (간식제공)
오후 : 2:00 - 4:00 (간식제공)
4. 교육비 : 1인당 4,800원(참가 어린이 전원의 한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장소 : 한국어린이 육영회 생활관 예절실 (한 예절실당 80명 규모)
6. 부대비용 시설 : '어린이 생활예절 교실' 교육전후로 육영동산을 이용하시면 자연과 더욱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7. 신청방법 : 사용 10일전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02)431-0685~6, FAX(02)431-0684

■ 육영동산 이용 안내

유아들의 신체발달 및 사회성, 정서, 탐색활동 등의 교육의 도움을 주고자 본회가 1993년도 부터 운영하고 있는 육영동산을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개장할 예정이오니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자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의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시설안내

● 자연 학습장(4,880평)

채소밭, 동물사, 원두막, 잔디운동장, 파고라, 유실수, 화장실 및 세면장, 식수대 등

● 놀이터(4,174평)

복합놀이기구, 드럼통기차, 그림그리기벽, 모래놀이터, 흔들놀이기구, 터널놀이기구, 차량시설, 파고라, 간이화장실, 식수대, 세면장 등

2.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 유아교육기관

● 이 용 료 : 무료

● 이용기간 : 97년 4월 1일 - 11월 30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이용시간 : 09:00-16:00

이용신청 : 방문 또는 전화, FAX신청

● 접 수 처 : 육영동산(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75번지)

☎(02)403-0698, FAX(02)413-7896

담당: 사업부 지원사업과 주임 김정근

■ 창작동화, 동시공모

유아들에게 적합한 소재의 동화·동시를 발굴·보급하여 유아들의 언어·장사·사회적발달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창작동화·동시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응모대상 : 동화·동시 창작에 관심이 있는 성인, 학생, 어린이(기성 작가도 출품가능)

2. 동화·동시내용 : 모든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다룬 동화·동시

3. 원고매수 : 동화부문-200자원고지 10매 이내

동시부문-200자원고지 3매 이내(반드시 원고지에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4. 원고마감 : 1997년 4월30일 도착분까지

5. 시상내용 : 동화부문-최우수작 1편 100만원, 우수작 1편 50만원, 가작 3편 각30만원

동시부문-최우수작 1편 50만원, 우수작 1편 30만원, 가작 10편 각10만원

6. 접수 및 문의처 :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2 한국어린이육영회 연구개발실 연구과

창작동화·동시 공모 담당자(앞) 우)138-732 ☎(02)425-1673,9

7. 당선자발표 : 당선자는 개별 통지하며, 97.7.8월호 회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공동육아연구원 예비원장연수교육

예비원장연수교육은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일할 원장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대 상 :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으로 보육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준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 서류접수 : 1997년 4월17일까지

· 면 접 : 1997년 4월18일 오전 11:00

· 면접장소 : 공동육아연구원 사무실

· 면접발표 : 1997년 4월 22일(개별통보)

· 교육기간 : 1997년 4월-7월

· 강의장소 : 공동육아연구원 강당

· 강의요일 : 매주 토요일 / 오후 2:00-5:00

· 수강료 : 전과정 50만원

· 수강인원 : 10명

편집부에서

■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안에 대통령의 아들이 갇혀있어 개입되었다니 우리 일반 서민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남겨줄 지 가슴이 막혀옵니다.

■ 교육개혁이 과연 이루어질지요?

현재의 교육, 특히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체제나 시설중심에서가 아닌 아동중심적 사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원고 좀 빨리 보내주세요

머리 숙여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원고 청탁을 받으신 분은 부디 제날짜까지 보내주시십시오. 조직부장 피곤이 상점해지고 있습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시다.

1년 구독 : 고은숙, 김인숙, 김미숙, 이경화, 배남숙, 노혜정

6개월구독 : 김경희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지역인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지원센터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산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율 목표표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어린이집 · 놀이방 및 보육 PC통신으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서비스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의료실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정과 특약요율의 50%적용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실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물 및 집기비용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30%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최종 적용요율의 30% 적용 중,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1+합인 할증요율)×100%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30원	9,000원	15,275원		24,225원
		2등지	7,820원	12,435원	20,315원		31,215원
		3등지	9,520원	15,215원	24,735원		39,000원
		4등지	11,335원	18,020원	29,440원		45,65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